

#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 25  
2014. November

제41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지난 20일 롯데호텔에서 개최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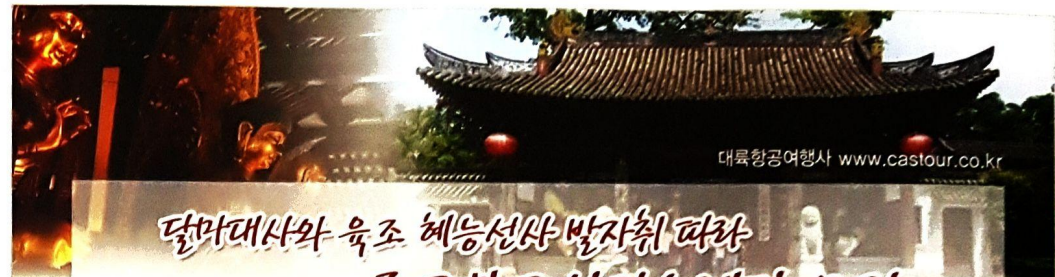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인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청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항주, 다롄,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야, 상하이, 선양, 우저우, 톈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기고시마, 기타큐슈, 쿠미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자타온,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www.aptpo.org



대륙항공여행사 www.castour.co.kr

## 달마대사와 육조 혜능선사 발자취 따라 참나를 찾는 중국불교성지순례단 모집

■ 여행기간 : 2014년 12월 11일(목) ~ 2015년 2월 26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 ■ 참가비 : 1인당 1,14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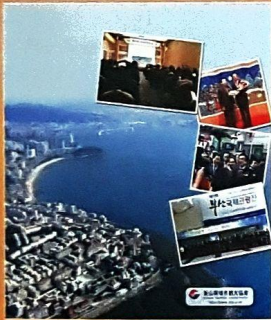
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식사
제 1 일 (목)	부 산 광저우	OZ305 전용차량	19:45 21:45 00:20+1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2층 종합안내소 앞 집결, 출국수속 부산 출발 광저우 도착, 입국 수속 후 호텔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 호텔 : 크라운프라자시티센터 또는 동급 (정5성) www.ihg.com	석:기내식
제 2 일 (금)	광저우 유 원 소 관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 혜능선사께서 식사를 하신 광효사 순례 • 달마대사께서 하루밤 묵은적이 있는 육용사 순례 • 남월왕묘박물관 - 유원으로 이동(약 2시간 30분 소요) • 선종5가 7종의 하나인 운문종의 본산인 운문사 순례 - 소관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호텔 : 라이스호텔 또는 동급 (정5성) www.hotelroyce.com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호텔식
제 3 일 (토)	소 관 총 화 광저우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 육조단경을 감상하신 대감사순례 • 육조혜능선사의 진신상이 모셔진 남화선사 순례 - 총화로 이동(약 2시간 30분 소요) • 총화선목원 온천체험(수영복 및 수영모 필수) - 광주 귀환(약 1시간 30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 호텔 : 크라운프라자시티센터 또는 동급 (정5성)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제 4 일 (일)	광저우 신 흥 광저우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 신흥으로 이동(약 2시간 소요) • 혜능스님이 열반했던 곳 국은사순례 - 광주 귀환(약 2시간 소요) • 방춘차 시장 자유 관람 및 산책 • 주강유람선 야경관광(약 1시간 내외 유람) - 공항으로 이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제 5 일 (월)	광저우 부 산	OZ306	02:20 06:20	광저우 출발 부산 도착 입국 수속 후 안방하...	조:기내식

- 포 함** 정5성급 호텔(2인1실), 관광버스전세비, 전일정식사비, 관광지입장료, 현지가이드 및 기사팀, 부산-광저우 국제선 왕복항공료, TAX 및 유류할증료, 해외여행자보험(1억원 보장), 중국단체비자비(1인 35,000원)
- 불 포 함** 개인 경비
- 참고사항**
- 이용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 노쇼핑 기준입니다. • 총화선목원 온천은 수영복 및 수영모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 호텔 싱글차지 : 1인 3박 150\$ • 1/1~1/3월 원단연휴 및 2/18~2/24 춘절연휴에 출발하실 경우 참가비가 인상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예약금 15만원 및 여권 원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길을 떠나면 그대는 자유인-  
**대륙항공여행사**  
Continental air travel service

600-013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1-1번지  
Tel : 051-463-0034 Fax : 051-462-2307  
e-mail : drair3004@naver.com

발행·편집인 이혜림  
편집위원 손해익 이명규 김종규 이혜림 김용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김무웅 기자)  
발행일 2014년 11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리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시 동광동4가 18-8번지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j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jmoon.kr



포지 \_ 제41회 세계관광의 날 기념행사

- 05 부산역 일원 관광·ICT·영상산업·창조경제 거점 플랫폼 구축
- 06 부산시관광협회 제41회 세계관광의 날 기념행사 열리
- 08 부산국제관광전 성황리 폐막
- 10 해외여행의 대세 터키, 부산에서 만나
- 11 제3회 부산시관광협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 12 부산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감천문화마을
- 13 부산 신복도로 르네상스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국제평가, 2014년 1위
- 14 동삼동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2017년말 확장 완공
- 15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무빙워크 설치키로
- 16 年600만 유로씩 한국에서 쓰는 돈 14조 2000억원
- 17 문화관광연구원, 4분기 관광산업 전망 "호름"
- 18 올해 한국인 해외관광 지출 일본 앞지를 듯
- 19 김해공항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예상
- 20 러시아 의료관광객 유치 위한 현지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 21 한국철도시설공단 '동부산관광단지' 건설키로
- 22 지상 최대, 최고의 제10회 부산세계불꽃 향연
- 23 호텔가 소식 : 롯데호텔부산, 파라다이스호텔부산
- 24 새책 : 부산이 낳은 발레리노 레전드 이원국
- 25 부산시 선정 마이스 우수기업에 롯데·파라다이스호텔
- 26 '영도대교 개통 80년·도시 재개통 1년' 축하행사 개최
- 27 자갈치시장 해안로, 도심 관광형 워킹장 문열어
- 28 부산발전연구원, 도심공항 터미널 입지 벅스코가 가장 적합
- 29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촌 일대서 제1회 공방아트 페스티벌 개최
- 30 2014부산비엔날레 새로운 예술교육 지평열고 막내려
- 31 해외여행 중 카드 쓸 것인가, 환전해 쓸 것인가
- 32 해운대 동백섬, 해수욕장 일대서 고운 최치원 문화 축전 열어
- 33 이기대 피톤치드 농도 자연휴양림 수준
- 34 2014년 9월 부산, 외국인 관광객 방문 동향
- 35 칼럼 : 현대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 촉진시키는 관광자원
- 36 가을여행 : 가을의 전설 그곳에 가면...
- 37 가을여행 : 함양 천연 숲 상림(上林), 그곳에 가면...
- 38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 39 호젓한 섬여행 5선
- 40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부·집명소·교육·관광자
- 42 카약 신공항 건설

## 부산역 일원 관광·ICT·영상산업·창조경제 거점 플랫폼 구축 관광객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휴식·편의시설도 대폭 보강

부산역을 비롯한 원도심 일대가 관광·ICT(정보통신기술)·영상산업 거점 기능을 갖춘 '창조경제 플랫폼'으로 되살아난다.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핵심은 부산역 일대를 '창조지식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부산역과 북항을 연결하는 복합시설을 건립해 정보·문화·관광·레저산업 지원기능을 갖춘 창조지식터미널로 활용한다. 이곳에는 다양한 업무시설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 제2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 부산역 광장을 입체공원화 하고, 문화예술광장도 새롭게 조성한다. 북항재개발과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 등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오는 2017년 윤곽이 드러난다.

차이나타운~초량시장 일대 원도심 상업지역은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다문화, 다양한 먹거리, 풍부한 근대문화유산 등 지역특성을 살려 스토리가 있는 근대화탐방로 조성 같은 관광자원 개발에 힘쓴다. 차이나타운특구축제와 초량 골목축제도 활성화할 계획.

초량 산복도로 일대에는 '생활복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복도로 일대가 주거 취락지역으로 노후화·고령화가 급속히



▲ 부산역을 비롯한 원도심 일대가 영상산업거점기능을 갖춘 정보·문화·관광·레저산업 복합 복합시설을 건립해 관광·ICT(정보통신기술)·영상산업 거점 기능을 갖춘 창조경제 플랫폼으로 되살아난다.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을기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재생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마을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만들고 편백나무 숲 힐링탐방로, 원도심 버스투어 등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휴식·편의시설도 대폭 보강한다. 산복도로 관광인력거 같은 이색 관광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민자를 유치해 부산역 철로 위에 '하늘 역'을 설치해 호텔을 짓고, 부산역 광장 인근에 호텔을 건립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김무웅 기자

## 부산시 관광명소 문화성·역사성 소재 디자인 개발 착수

부산시가 부산다운 관광기념품 디자인과 상품 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의 계획에 따라 디자인센터가 부산 관광명소와 문화성, 역사성을 소재로 한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가 위주 상품을 지양하고, 일상생활과 친숙한 대중적 상품화를 시도한다. 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업체에는 판로 확보를 위해 주요 기관 구매 협업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모전 수상작은 상품화가 되도록 시제품 제작을 지원

하고, 디자인과 포장 등 제품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기념품 설명서 외국어 번역을 지원하고, 전문 제조업체와 연결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품화가 되면 부산시가 이를 우선 구매할 예정이다.

종래 기념품은 수공예품과 지역특산물 위주의 이데 기념품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와 디자인, 핵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같은 새로운 관광 상품개발에 착수했다.



**[27회 관광대상] (주)진성관광여행사 / 강준구 대표이사**

올해 관광대상은 진성관광여행사 강준구 대표가 수상했다. 강준구 대표는 1952년 출생, 금강불교대학 법사과,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수료, 동아대학교 스포츠 CEO과정을 수료 했으며 강원삼척 전신전화국 공무원 임용, (주)남원해운대 입사, 과장·부장·이사 역임, (주)진성관광여행사 설립, 이사 취임, (주)진성관광여행사 대표이사 취임, KATA(한국여행업협회) 중국인 유치 자문위원부 위원장, KATA(한국여행업협회) 이사 3연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지구 국제부와 부위원장 2연임, 부산 영도라이온스 클럽 회장(34대) 역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지구 국제친선부와 위원장을 지냈으며, 2007년 현재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부회장겸 일반여행업위원장 연임중이며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지구 기획 부총재 및 감사, KATA(한국여행업협회) 이사, 국제 라이온스협회 355-A지구 연수위원장, 국제친선위원장으로 재임중이다.

## 부산시관광협회 제41회 세계관광의 날 기념행사 열려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한 해 동안 관광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제41회 관광의 날 행사가 지난 20일 시내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경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박중수 부산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이근후 명예회장 등 관련업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태섭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 상반기 전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트렸던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악재를 만나 우리 관광업계는 전례없는 불황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를 고훈삼아 우리 관광업계는 어떠한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특하고 다양한 고부가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관광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업계가 먼저 술선수범을 보일 때 정부나 부산시의 정책지원도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산관광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와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아무쪼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회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드리며 41회 세계관광의 날 기념행사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광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협회는 부산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남달리 헌신해 오신 진성관광여행사 강준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전체 회원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영예로운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정경진 행정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계의 내빈과 관광가족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편집실



**[부산광역시상 표창]**

- 김태환 - (주)부산롯데호텔 객실팀 과장
- 조수진 - (주)해운대그랜드호텔 판촉지배인
- 서광석 - (주)삼진여행 대표이사
- 김석만 - 시티투어부산 대표
- 주동국 - (주)롯데부산면세점 점장
- 이지훈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롯데점 CS팀 사훈

- 관석영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롯데점 CS팀 사원
- 박석영 - 부산해상관광개발 마케팅팀 사원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회장 감사패]**

- 원철식 - 영산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 조성직 -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관광경찰대장
- 방영수 - 부산은행 마케팅부 이동점소 소장
- 김경오 - 부산광역시 관광지흥과 주무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 김봉곤 - (주)부산롯데호텔 조리팀 양식책임자
- 정성웅 - 노보텔엠베서더부산 사원
- 손원권 - 부산관광공사 아르파나 운영지원팀장
- 박영진 - (주)새부산관광투어 부장
- 이인우 - 모두모두농원 점장
- 이유림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롯데점 CS팀 사원

**[관광인 자녀 장학금 수상자]**

- 장현원 - 두송중학교 3학년
- 천유진 - 개림중학교 1학년
- 한현수 - 대신여자중학교 1학년
- 한 국 - 용동중학교 3학년
- 최혜정 - 동아중학교 3학년
- 박민정 - 성모여자고등학교 3학년
- 김세환 - 부산남일고등학교 2학년
- 박세영 - 해운대여자고등학교 2학년
- 하진실 - 동부산대학교 치위생과 1학년
- 김수민 - 인하항공전문학교 항공기계공학과 1학년
- 서지애 - 부산대학교 불어불문과 1학년
- 권희철 - 신라대학교 사학과 1학년
- 이예지 - 경성대학교 사진학과 1학년
- 이찬희 -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1학년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회장 표창]**

- 정대성 - (주)부산롯데호텔 식음팀 매니저
- 김천수 - 코오롱씨클라우드호텔 객실정비 지배인
- 김기영 - 호텔리베라해운대 판촉 지배인
- 박인혁 - (주)초록나눔여행사 과장
- 김유리 - (주)산라투어 실장
- 김태근 - 시티투어부산 팀장
- 우보희 - (주)동방여행사 사원

# 부산국제관광전 성황리 폐막

세계 각 국의 다양한 관광정보 소개, 공연관람 · 체험 흥미로워



부산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관광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 (BITF 2014)이 4일간의 성대한 축제를 끝내고 성황리에 폐막했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주)코트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세계 44개국 244개 업체 및 기관, 430개 부스가 참여했으며, 지난해에 비해 다소 상승한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해외홍보관, 국내홍보관, 여행상품특별판매관, 세계음식페스티벌관, 관광지식정보교류관, 세계풍물관, 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존으로 구성되어 선보인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은 가을 관광 여행을 준비하는 가족층을 겨냥하여 이색관광지 등 올해의 관광 트렌드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박람회에는 터키, 아제르바이잔, 마리아나,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이 처음 참가해 자국 홍보에 새롭게 나섰다. 이외에도 국내 12개 광역시·도가 참가해 해외바이어들과 국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한국의 관광지 및 숨은 명소를 소개했다.



메인무대에서는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광의 전통 민속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들이 시간대별로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으며,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에서는 총 30여 개 기관 및 업체에서 해외항공권, 호텔숙박권을 비롯하여 약 100여 가지 상품을 협찬하여 참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리고 해외 아웃바운드여행사와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및 관광업체간의 교류의 장인 "해외바이어상담회"에 부산지역 관광상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광둥 지역의 대형 아웃바운드여행사들이 참가함으로써 부산 관광자원 홍보는 물론, 부산의 주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작년에 신설된 프로그램인 "해외참가국 대사와의 만

남"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진행을 통해 부산 시민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참가국에 대한 많은 정보와 함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박람회 운영의 모습을 보였다.

부산국제관광전을 주최한 부산광역시 김천재 관광진흥과장은 "관광전에 참가한 참가자 및 관광객 모두가 이곳 부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를 바란다." 라고 참가국 및 관계자들에게 격려했으며 또한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이태섭 회장은 "부산의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산시민도 각 국의 다양한 여행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부산국제관광전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실



-세계 1위 관광대국-

## 해외여행의 대세 터키, 부산에서 만나다

### 동서양 역사와 문화, 종교, 예술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용광로와 같은 곳



▲ 터키 찰리 트롤을 맞고 있는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우측 두번째, 알리 카라쿠쉬 신임 터키문화관광부 부국장(좌측 두번째)

지난달부터 15일까지 4일간 해운대 벅스코에서 개최된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에 터키문화관광부가 올해의 광고 캠페인 '홈 오브(Home of)' 라는 슬로건으로 참가했다.

터키문화관광부는 올해 'Home of' 광고 슬로건을 통해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자 신비롭고 다양한 문화유적, 천혜의 자연경관, 독특한 지형을 두루 지닌 터키가 진정한 역사와 자연의 의미를 찾아 떠날 수 있는 여행의 '본 고장(Home)'임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고향에 온 것만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와 함께 다양한 문화, 역사, 자연의 본고장으로서의 터키 곳곳을 소개했다.

이번 BTF를 통해 터키문화관광부는 각 지역과 터키의 문화, 역사, 자연 등 주제별 안내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고 터키의 대표 디저트인 달콤한 '로쿰'을 선보이는 등 터키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했다.

알리 카라쿠쉬 신임 터키문화관광부 동북아시아본부국장(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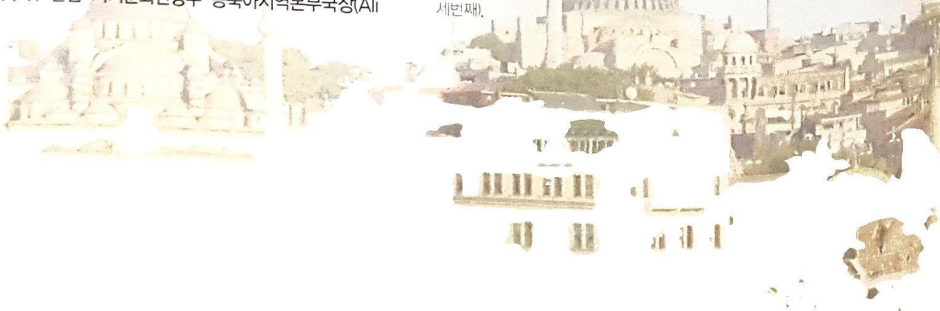
Karaku, Turkish Embassy Office of The Cultural and Information Counsellor)은 "매년 터키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파묵칼레 같은 아름답고 친근한 여행지 뿐만 아니라 숨겨진 보석 같은 관광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터키를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공식집계에 따르면 터키는 지난해 3천5백만여 명의 외국인이 찾은 세계 6위 관광 대국으로 동서양 역사와 문화, 종교, 예술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 2003년의 한국인 터키 입국자수는 5만472명 이었던 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는 3배 이상 늘어난 18만7040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33%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23만 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btjbusan@hanmail.net



▲ 터키문화관광부 한국홍보사무소 나은경 대표(좌측 첫번째), 알리 카라쿠쉬 신임 터키문화관광부 부국장(좌측 두번째),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우측 세번째)



## 제3회 부산시관광협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2014년 11월 6일 양산 통도파인스트 컨트리클럽에서 제3회 부산시관광협회장배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된 행사는, 부산시관광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관광업무 관련 종사자 80여명이 모여 부산 관광인 화합도모 및 소통의 장을 이루었다. 16시 30분에 대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찬 및 각종 시상, 부상 제공 그리고 경품 추첨이 이어졌다. 항공권, 숙박권, 관광 시설 이용권, 식사권 등 다양한 경품이 주어졌으며 18시 30분경 행사는 성료되었다.



## 부평강통야시장 개장년만에 전국 최고 명품관광지로... 광안대교, 황령산 봉수대, 마린시티와 더불어 부산의 필수 야간 관광코스 사랑받아

지난해 10월, 부평동 강통야시장이 개장된지 1년만에 하루 평균 3000여 명, 주말에는 7000여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품관광지로 자리잡았다.

야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고 세계각국의 맛난 음식들을 한 곳에서 먹을 수 있어 좋은거 같다"고 말했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상인들의 매출은 크게 뛰었다. 관광객이 몰리는 인기 매대는 하루 매출이 9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권리금이 3배 이상 올랐고, 지가가 20~30% 나 뛰었지만 시장 내 빈 점포는 자취를 감췄다. 야시장은 광안대교, 황령산 봉수대, 마린시티와 더불어 부산의 필수 야간 관광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부평강통야시장이 전국구 명물로 떠오르자 원도심 상권도 살아났다. 낮에는 영도대교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러, 밤엔 야시장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주변 상가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다. 광복로 일대와 자갈치·국제시장, 남포·광복로 지하상가, 남포동 건어물도매시장,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이 일대 상인들은 손님이 30% 이상 늘었다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다. 1998년 부산시장 이전 이후 긴 침체기에 빠졌던 부산 중구 원도심의 한산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야시장 활성화에는 부산시도 한 몫을 했다. 매대에서 구입한 음식을 편하게 먹고 쉴 수 있는 '야시장 카페'를 마련하고 4억원을 들여 야간 경관조명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장 내 이바구와 사거리에서 하루 두 차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마술과 음악 등 문화 공연을 펼쳐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부평강통야시장이 개장 1년 만에 전국구 명물로 부상했다. 부산을 넘어 전국 최고의 명품 전통시장으로 하루가 다르게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 감천문화마을

### 미국 CNN, 프랑스 르몽드 등 국내·외 유명언론 소개로 해외관광객 급증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간 방문객 수에 가까운 28만여 명이 찾는 등 관광객들이 찾았다. 최근 사하구청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참사 여파로 감천문화마을의 축제가 취소되는 등 악재가 있었지만, 지난 상반기에만 모두 28만 7천 754명이 마을을 방문했다. 지난해 방문객 수는 총 30만 5천여 명이다.

감천문화마을은 정확한 방문객 수를 집계하기 위해 마을 입구 작은박물관에 무인계수기를 설치, 실제 방문객 수를 알 수 있게 됐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지나가는 방문객 수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마을에 드나드는 주민들 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평일 주민 수의 50%, 주말 100%를 뺀 합계를 순수 방문객 수로 본다.

감천문화마을은 2012년 미국 CNN, 프랑스 르몽드 등 해외

유명 언론은 물론 국내 언론에 소개되면서 방문객들이 늘기 시작, 2011년 3만여 명, 2012년 9만 8천여 명, 2013년 30만 5천 여명으로 매년 방문객이 3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감천문화마을이 부산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올해 총 방문객 수는 지난해의 2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건축가 4명이 참여해 창작문화공간을 만드는 '빈집 레지던시' 사업 계획안이 마무리돼 이달 전시회와 심포지엄을 거쳐 내년 4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하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감천문화마을에서 민박이 가능해지면, 방문객이 더욱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무웅 기자

## 도시재생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민통합 사례 주목 떠나는 달동네 이미지 벗고 공동체 회복으로 활기 되찾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 부산의 도시재생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시민통합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사람이 떠나고 빈집이 늘어나 삭막했던 산복도로가 재생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기를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을 둘러본 뒤, 국정에 적극 반영할 만한 도시재생

모델이라고 극찬했다. 특히 마을의 독특한 풍광과 입주 작가들이 설치한 예술작품, 주민들이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에 감탄하며, 주민들의 밝은 모습과 활기찬 마을분위기를 높게 평가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날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갖기 위해 부산을 방문, 첫 일정으로 도시재생의 국제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한 것. 위원들은 무엇보다 산복도로 주민들과 행정기관, 예술가들이 합심해 낙후 지역을 세계적 명소로 탈바꿈시킨 데 높은 점수를 줬다.

시 창조도시관계자는 '산복도로 주민공동체는 마을계획가와 활동가들이 주민들과 낮잠 가리지 않고 만나 밥 먹고 술도 마시면서 마음을 터놓으면서 형성할 수 있었다'며 '주민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사랑방을 만들고 마을축제를 열고, 마을 곳곳을 정비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골목경제도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웅 기자

##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국제평가, 2014년 1위 부산 대표적 관광지 '감천문화마을', '초량동 이바구길' 대표적인 성공사례

부산산복도로가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이 주최하는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2014'에서 부산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세계대도시연합은 전 세계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135개 도시로 이뤄진 세계 최고의 국제기구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부산과 서울 등 8개 도시가 가입해 있다. 세계대도시연합은 3년에 한 차례 메트로폴리스 어워드를 개최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된 주요 도시정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선정에 앞서 올해에는 33개 도시의 44개 프로젝트가 출품됐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이번 메트로폴리스 어워드에서 경제, 문화 등 사회·경제적 분야와 마을 고유의 환경을 접목하는 독특한 접근법을 통해 고지대 산복도로 일대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을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평가받았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부산시가 2011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1천500억 원을 투입해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의 고지대에 개설된 산복도로 일대 9개 구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이다.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로 부상한 사하구 감천동 감천문화마을과 동구 초량동 '이바구길' 등이 산복

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특히 '부산의 마추픽추'라 불리는 감천문화마을은 마을공동체 회복에 이어 지난해 총 방문객 수 30만 5천여 명, 지난 1~6월 28만 7천여 명 등 전국은 물론 해외 각국에서도 많은 관광객과 시찰단이 찾고 있는 등 도시재생의 세계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시상식은 다음 달 8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메트로폴리스 총회 갈라디너'에서 열리며, 부산시는 2만 달러의 상금도 받는다.

시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적 도시재생 사례로 인정 받았다"며 "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개선 및 보완과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또 "그동안 다양한 부문의 국내 평가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으나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본상을 수상하기는 처음"이라며 "이번 상은 도시 브랜드 제고와 정책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웅 기자

## 동구 '초량 168계단' 모노레일 설치 산복도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부산 동구 산복도로의 명물 '초량 168계단'에 모노레일이 설치된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초량 168계단은 한국 근대화와 6·25전쟁의 애환이 서린 곳으로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 부산역 건너편 상해거리(차이나타운)에서 초량 이바구길을 통해 산복도로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계단이 길고 가팔라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이 오를 내리기 힘든 불편함이 있었다.

시와 동구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역사적 애환이 깃든 초량 168계단을 보존하면서 산복도로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단 옆에 모노레일을 설치키로 했다. 오는 12월 사업비 22억6천만원을 들여 길이 53m

폭 2~4m의 모노레일 설치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께 완공할 예정. 모노레일은 분당 30~40m를 움직이며 탑승인원은 6명이다. 모노레일 정거장에 카페와 멀티테라스 광장 등 편의공간도 들어선다. 부산시와 동구는 초량 168계단에 모노레일이 생기면 어르신과 어린이 등도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복도로에 조성한 이바구길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구 영주동에 지난 6월 설치한 모노레일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산복도로 관광활성화에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 동삼동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2017년말 확장 완공 2018년, 22만톤급 세계 최대크루즈선도 접안가능



최근 부산을 찾는 크루즈선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영도구 동삼동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을 위한 설계 예산이 확보돼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 착공에 들어가면 2018년도엔 세계 최대 크루즈선 유치도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이 최근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다. 최종 예산 규모는 23억 원이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16년 400억여 원의 예산으로 확장 공사에 들어가 2017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북항재개발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의 크루즈 부두도 10만급 규모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북항대교 때문에 수면 위 선체 높이가 60m를 넘으면 입항할 수 없다.

이에 부산을 찾는 대형 크루즈선의 경우 거대한 하역 장비와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09년 부산을 찾은 크루즈선 중 8만 이상 선박은 단 3척에 불과했지만 2012년엔 14척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47척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만 이상 선박이 90척에 달하고 내년엔 100척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엔 부산항에 처음으로 16만급 크루즈선 입항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부산은 초대형 크루즈선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어 항후 크루즈선 유치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형 크루즈선의 접안을 위해 동삼동 국제크루즈터미널 부두의 확충과 보강이 시급한 과제도 대두돼 왔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실시설계를 거친 후 360m 길이의 크루즈 부두를 75m가량 확장할 예정이다. 또 대형 선박 접안을 위한 기존 시설물도 보강할 계획이다.

크루즈 부두 길이가 435m로 확장되면 현재 세계 최대 크루즈선인 22만급 크루즈선 접안도 가능해진다.

2년 동안의 공사 기간에는 부두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감만부두를 임시 크루즈 부두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북항에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이 내년에 개장하고 영도에 국제크루즈터미널도 확장되면 대형 크루즈선 유치가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용 기자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무빙워크 설치키로 크루즈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 터미널 활성화 차원



▲ 내년 초 완공 예정인 새 국제여객터미널에는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과 대형 국제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가 신설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크루즈 부두 운영방안 수립과 관련해 자체 회의를 갖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의 크루즈 승객 이송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무빙워크와 간이 CIQ 설치, 셔틀버스 운영 등 세가지 안 중에 결국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터미널 활성화 차원에서 무빙워크 설치로 결론 내렸다.

내년 초 완공 예정인 새 국제여객터미널에는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과 대형 국제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가 건립된다. 국제여객선 전용 부두에는 무빙워크가 설치돼 승객들이 편리하게 무빙워크를 통해 터미널과 부두를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크루즈부두는 무빙워크 설치 계획이 없었다. 통상 크루즈 승객들은 선내에서 간단한 수속을 밟고 하선하면 곧바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크루즈 승객들은 터미널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정원이 크루즈 부두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관광버스의 크루즈 부두 진입을 금지하고 모든 여행객의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경우 방침을 고집했다. 대개 크루즈 관광객의 기항지 체류시간이 7~8시간 정도에 그쳐 통상 선상 입국심사만 하지만 보안검색 강화를 이유로 절차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에 크루즈 부두에서 터미널까지 거리가 850m에 달하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의 승객 이송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엔 크루즈 전용 간이 CIQ 설치가 검토되기도 했다. 외국 승객들이 하선 후 간이 CIQ에서 수속을 밟은 후 곧장 관광 버스를 타고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부산항이 항후 크루즈 모항 기능을 하게 되면 기존 터미널을 이용해야 해 증폭 투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현재 짓고 있는 여객터미널의 활성화 차원에서 초기 투자 비용 문제가 있더라도 무빙워크 설치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상 5층, 연면적 9만 2천945㎡에 달하는 터미널의 상가, 면세점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선 크루즈 승객들의 터미널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당초 300억 원대로 예상되는 무빙워크 설치 비용을 100억 원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크루즈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터미널 활성화 차원에서 무빙워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해수부, 부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 공사에 따른 대체 부두로 감만부두 4번 선석을 정해, 이달부터 보강 공사를 실시한다.

김무용 기자



## 年600만 요우커 한국에서 쓰는돈 14兆 2000억 원 향후 10~20년간 한국행 요우커 더 늘어날 것

한국을 찾은 요우커(중국인 관광객)가 한국에서 쓰는 돈이 14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한국관광공사가 밝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589만명으로 예상되는 요우커가 국내에서 쓰는 돈은 14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평균 1만4500달러짜리 자동차를 92만대 수출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앞으로 요우커의 한국행(行)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요우커가 향후 10~20년간 국내 내수(內需) 부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우커 경제 파급 효과 GDP의 1.6%

요우커는 국내 내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한 요우커 한 사람당 평균 지출액은 2272달러(약 230만원)로 전체 관광객 평균의 1.3배

에 달한다. 전반적인 경기(景氣) 침체 와중에도 주요 호텔과 면세점, 화장품, 패션 기업 등의 올해 매출이 두 자릿수로 성장한 데는 '요우커 파워'가 절대적이었다. 요우커 파워는 전국 곳곳에 호텔 신축 붐도 낳고 있다. 서울에서만 올 하반기 개관했거나 예정인 비즈니스호텔은 11곳이다. 신라호텔은 최근 서울 강남 역삼역에 '신라스테이 역삼'을, 스타우드는 서울 청담역 인근에 '알로프트 강남'을 열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방한 요우커가 올해 유통·숙박·운수·문화예술 등 각 업종에 미칠 파급 효과는 23조 2000억원(약 221억1000만달러)으로, 올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예상치의 1.6%에 해당한다.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요우커들의 1000만명 시대를 대비해 관광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

## 부산발전연구원 해운대해수욕장 4계절 관광상품화 개발 제시

부산발전연구원은 해운대해수욕장을 4계절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초대형 인어상 등 해운대해수욕장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품격 있는 아간 경관 조영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연중 끌어들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상에 벤치 점프대, 케이블카, 영화관, 호텔, 레스토랑 등을 조성해 바다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수상 택시, 워터스키, 바다수영 교육장 등으로 해양레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낚은 임해행정봉사를 부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피서철 외에는 백사장을 유료화해 씨름대회, 패션쇼, 비치 발리볼 대회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특히 겨울에 모닥불축제와 펭귄수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여름에는 쾌적한 피서를 위해 입장객 수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속놀이, 해양 스포츠, 모래체험 등을 위해 백사장에 파라솔 없는 구간을 설정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샤워기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 피서객을 위해 어린이 전용 해수욕장과 놀이터를 조성하고 일몰 후에도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도 제안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여론수렴과 사업성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관광연구원, 4분기 관광산업 전망 '흐림'

관광산업 전망이 4분기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올해 4분기 관광산업 경기실사지수(T-BSI)가 81로 전분기의 65보다 16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100이 넘으면 경기전망을 좋게 본다는 응답이 많다는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렇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이다. 4분기 매출액은 BSI는 80으로 전분기의 61보다 19포인트, 수익성 BSI도 85를 7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자금 사정 BSI도 85로 전분기(74)에 비해 11포인트 올랐으나 인력시장 BSI는 87에서 86으로 나빠졌다.

관광업종별로 보면 카지노가 중국인 관광객 특수에 힘입어 120으로 가장 높았고, 특급호텔(117)도 기준치를 웃도는 등 2개 업종만이 선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나머지 업종은 100을

하회했다.

1~3급 호텔이 58로 가장 좋지 않았고 휴양업 64, 놀이시설 등 유원시설업 70, 국내여행업 75, 국외여행업 81, 국제회의업 82 등의 순이다. 1~3급 호텔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근 게스트하우스와 민박 등 대체숙박시설과의 치열한 경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4분기 우리 국민의 국내관광지출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5로 전분기(106)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작년동기(100)에 비해서는 올라갔다. 이는 수확여행 재개, 가을 관광주간 실시, 단풍관광,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외관광지출 CSI는 99로 전분기(97)보다 높아지면 서 올들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 부산시, 외국인 관광객 위한 홍보물 새롭게 제작 배포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표기 외국인 관광객에게 배포하기로

부산시는 새롭게 제작할 부산관광지도를 포함한 모든 부산 관광 홍보물부터 의료시설 안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표기 외국인 관광객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들과 협력해 현재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화 체계를 점검해 외국인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비상 상황 때 자신의 위치 정보와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응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시 측은 단체 관광객들이 응급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이들을 이끄는 관광가이드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부산시소방안전본부와 협의해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민공원서 개최 축하행사 각국의 관광정보 획득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 운영

오는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축하행사가 최근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개최됐다. 최근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문화원 부산 유치 등 부산과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 아세안 국가와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의 국립 무용단이 민속·전통무용, 가면극, 군무, 인형극, 전통 기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개최지인 부산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이 백중놀이, 대동놀이 등 화려한 국악 공연을 펼쳐졌다.

이와 함께 아세안 10개국 관광 부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 부스, 아세안 음료를 제공하는 '아세안 카페' 등 각국의 관광정보 획득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으며, 아세안의 매력적 여행지를 담은 '아세안 여행 사진전(Colours of ASEAN)'도 진행됐다.

## 올해 한국인 해외관광 지출 일본 앞지를 듯

한국은행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관광지출액은 217억달러(약 22조7천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올해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에 쓴 돈이 처음으로 일본인들의 해외관광 지출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에 일본의 해외 관광지출은 218억달러로 격차가 1억달러(약 1천억원)까지 좁혀졌다.

일본의 인구 규모는 한국의 2.6배인데다 국내총생산(GDP)은 4배여서 그동안 해외 관광지출액은 한국보다 월등히 많았다. 10년 전인 2004년만 해도 일본의 연간 해외 관광지출은 382억달러인 반면, 한국은 124억달러에 불과해 격차가 258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의 해외 관광지출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평균 270억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사정이 달라졌다.

2012년 말 달러당 86.76엔이었던 달러·엔 환율은 작년 말 105.04엔으로 21.1% 절하됐다. 해외여행을 나가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비행기표, 호텔비 등이 1년 만에 20% 이상 비싸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관광지출을 2012년 279억달러에서 작년 218억달러로 1년 새 61억달러(21.9%) 줄였다. 달러·엔 환율은 최근 109엔대까지 올라 일본인들은 관광지출을 계속 해서 줄이는 추세다. 반면, 원화 강세와 저가 항공사의 확산 등으로 여행비 부담이 줄어든 한국인들은 해외 관광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평균환율)은 2012년 달러당 1,126.88원에서 작년 1,095.04원으로 2.8% 절상됐다. 올해 8월까지의 평균환율은 1,042.64원으로 낮아졌다.

한국의 해외 관광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50억달러까지 줄었다가 2010년 188억달러, 2011년 199억달러, 2012년 206억달러 등 4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의 누적 해외 관광지출은 131억6천500만달러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한국의 해외 관광지출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 김해공항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예상 영남지역 5개 공항 중 김해공항의 비중 매년 증가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해, 대구, 울산, 포항, 사천공항 등 영남지역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영남지역 전체의 항공수요 추정은 내년 1천306만명, 2025년 2천14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967만명에 이른 김해공항의 승객 수는 △2015년 1천93만명 △2020년 1천487만명 △2025년 1천816만명 △2030년 2천162만명 △2035년 2천353만명 △2040년 2천49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5~2030년 연평균 증가율이 4.7%에 이르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장래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김해공항은 2023년이면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해공항을 제외한 대구공항과 울산·포항·사천공항 등 나머지 4개 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지역 5개 공항 중 김해공항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5개 공항 중 김해공항의 여객수요 비중은

83.5%였으나 2030년에는 8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영남지역 공항 이용객 중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김해공항을 제외한 다른 공항은 주로 국내선을 운송하고, 국제선은 대부분 김해공항을 운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내선 분야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국제선 분야는 공항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ADP)이 담당했다.



## 부산항 입국 크루즈 관광객 年100만명 돌파

우리나라에 입국한 크루즈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 입국 크루즈 관광객은 2010년 17만 명을 돌파한 이래 2012년 28만여 명, 지난해 79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이날 100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도 2005년 2만4852명에서 올 들어 현재 24만2736명으로 10년새 10배 늘어났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662달러로 한국관광공사는 집계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총 5800억 원을 쓴 셈이다. 여기에 예·도선료, 항만시설사용료, 출입이로 같은 부대비용(크루즈선 적당 4000만 원, 총 160억 원)과 수송을 위한 관광버스 임차료(대당 40만 원, 2만여 대 총 80억 원)를 합치면 60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기준을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에 적용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7500억 원에 이른다.

올해 9월까지 입국한 크루즈 관광객(89만3169명) 중 중국인이 90.2%(80만5517명)로 중국인 덕택에 경제적 파급효과 규모는 커졌으나, 이들의 소비가 면세점 백화점에 집중돼 서민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중일 관계 악화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중국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사가 중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 대신에 제주항(56만여 명) 부산항(24만여 명) 인천항(16만여 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 세븐리 카지노, 롯데호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돼

'세븐리 카지노'를 운영 중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측은 "최근 입찰 심사 결과 롯데호텔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로의 이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던 '세븐리 카지노'는 일단 현재 위치한 서면의 롯데호텔부산 내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6년 부터 '롯데호텔부산'에서 카지노를 운영 중인 GKL 측은 '2016년 1월 1일부터 5년 이상(최소 5년)'을 계약기간으로 내걸고 새로운 영업장 선정을 추진 중이다. 롯데호텔과의 기존 영업장 계약은 내년말까지로 돼 있다.

GKL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뒤 롯데와 이미 한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2차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영업장 계약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 입찰에서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롯데가 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돼 카지노가 현재 자리에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롯데가 현재 2층에 위치한 카지노를 3층으로 옮기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러시아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부산이 러시아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시도한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부산 의료기관 등은 지난 5~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아르짚을 방문해 의료기술 세미나와 의료관광설명회, 비즈니스상담회 등 '러시아 의료관광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아르짚의 6개 의료기관을 방문, 암, 불임, 출산, 감상신질환, 척추·관절질환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현지 의료진과의 토론회를 통해 부산의 우수한 의

료기술을 소개했다.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의료관광설명회 및 비즈니스상담회도 열었다.

부산시와 부산 의료기관은 블라디보스토크·아르짚시 정부 등과 의사 연수 프로그램 협정도 맺었다. 러시아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대형 의료기관에서 1~3개월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한 것. 이를 통해 부산과 러시아의 의료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러시아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부산으로 유치하는데 현지 의사들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위한 의료시설 안내 부족

###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체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거점 병원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은 부산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광과 개인 일정에 맞춘 개별관광으로 나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 최근 행동이 자유로운 개별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단체관광객의 경우 한국인 여행가이드와 버스기사 등이 함께 이동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 형편이 낫지만, 개별관광객은 부산지역 관광지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시가 제작한 부산관광지도에는 부산지역 주요 병원의 연락처가 적혀 있으나 대부분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인데다 외국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연락처가 안내돼 있는 병원의 경우 성형수술과 만성질환

치료 등을 위해 예약한 뒤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주요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체계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등 미흡한 상황이다.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날로 늘고 있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좀 더 안심하고 빠르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권역별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크루즈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운대와 서면, 중구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 외국어가 가능한 인력을 갖춘 거점병원을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면 지역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법인, 국제회의·의료관광 유치업 허용

의료법인도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이 결합된 이른바 '메디텔' 건립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접 메디텔을 세워 해외환자들을 위한 의료관광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를 줄여 영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법인 난립과 모 의료법인 자산의 대규모 유출을 막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내에서만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동부산관광단지(가칭)' 건설키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개월 체류형 해양복합리조트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및 동부산관광단지(가칭)를 건설키로 하고 오는 12월 중 시공사업자를 선정해 공사에 착수, 2015년 12월 완공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산관광단지역은 현재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동해남부선 송정역과 기장역 사이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일대에 위치한다.

동부산관광단지역은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63억 원 전액을 부담하고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는 수탁사업 형식으로 이뤄진다.

동부산관광단지역은 역무시설이 철도 아래에 건설되는 선하역사로 지상 2층에 2천 28㎡ 규모로 건설되며 2026년 기준으로 하루 3만 8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산관광단지역은 숲(나무)과 파도의 개념을 반영한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됐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최우수등급을 반영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동부산관광단지(가칭)가 들어서면 동부산관광단지의 철도 접근성이 향상돼 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사업, 시민계획단 구성

### 해운대 관광특구와 해안절경이 연계된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부산시는 최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해 시·구의원, 교수·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 37명이 참여하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민계획단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을 둘러싸고 시의 해운대 올림픽교차로~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9.8km 구간에 이르는 그린 레일웨이 사업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미포~송정 4.8km 구간 상용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기존 그린레일 웨이 사업에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시설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미포~송정 구간 사업을 위해선 지자체의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시민여론 수렴과정에 참여해 기존 개발계획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시민계획단 중심의 본격적인 라운드테이블에 앞서 시민대토론회를 갖고 여론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민대토론회에는 폐선부지 개발에 대한 찬반의견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이 패널로 참가해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시는 이에 앞서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전 구간 산책로, 자전거길, 전망대 등 공원시설 조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포~송정 관광시설 설치 △기타 제안 등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올려 온라인 정책포럼을 진행한다. 시는 온라인 정책포럼과 시민대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시민계획단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계획단의 라운드테이블 의견을 그린 레일웨이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그린 레일웨이 사업을 통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해운대 관광특구와 수려한 해안절경이 연계된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계획단에는 부산대 임종철(토목공학), 부경대 장희석(토목공학), 경상대 강동진(도시계획학) 교수와 윤인규(기단조경) 대표 등이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다. 시민단체에선 부산환경운동연합 강동규 공동대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훈선 사무처장, 동해남부선폐선부지활용네트워크 장남수 공동대표, 해운대시민포럼 조봉우 운영위원장 등도 참여한다. 해운대구 중1·2동, 우1동, 송정동 등 주민대표 13명도 함께한다.

# 부산사랑(主題)으로 감동을 주는 지상최대, 최고의 제10회 부산세계불꽃 향연!

24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K-POP 한류콘서트 전야제 행사에 이어 '25일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로에서 거리 축하 퍼레이드 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가슴 멎는 듯 화려한 불꽃의 향연이 가을하늘을 수 놓았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부산불꽃축제는 '부산 사랑'을 주제로 더욱 화려하고 웅장한 자태를 뽐냈다. 올 행사는 10월 24~25일 부산시민공원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펼쳐졌다.

24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K-POP 한류 콘서트는 부산 불꽃축제의 전야제 행사. 시민공원으로 가을 소풍 나온 가족, 연인, 동료 등이 둘러 앉아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형 뮤직페스티벌'로 꾸며졌다. 가수 인순이를 비롯해 알리, 시스타 효린, 케이윌, 더원 등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은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불꽃축제 주 무대인 광안리해변은 본 행사전부터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후끈 달아올랐다. 오후 2시부터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일대에서는 거리퍼포먼스와 불꽃음악회가 시작 됐으며 오후 6시까지 광안리 해변로에서 펼쳐진 거리퍼레이드에는 댄스, 사물놀이, 타악 퍼포먼스 등의 흥겨운 무대를 감상할 수 있었다. 오후 6~8시 이어지는 불꽃음악회는 음악공연과 함께 광안대교의 미디어 파사드 조명을 이용한 환상적인 불꽃쇼를 선사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부산멀티불꽃쇼는 25일 오후 8시부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1시간가량 펼쳐졌다. 1.2km 광안대교와 광안대교의 최첨단 LED 경관조명을 활용한 화려한 멀티미디어 쇼, 여기에 올리는 광안대교 상판에 대형 타워크레인을 설치, 원형, 하트 등의 다양한 형태의 불꽃을 선보이는 '타워불꽃'을 새롭게 선보였다. 광안대교 상판에서 3단계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나이아가라 폭포 불꽃쇼'를 업그레이드 한 '컬러 이과수폭포'도 더욱 화려해졌으며, 매년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25인치 초대형 불꽃도 기존 색에서 여러 색을 더해 어느 해보다 아름다웠다. 한편, 올해부터 광안리 앞바다의 바지선은 관광객들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띄우지 않았다.

부산불꽃축제 따라 일본 쓰시마(대마도)에서도 불꽃축제를 매년 개최기로, 쓰시마시와 나가사키현은 크루즈 운영사와 연계해 부산불꽃축제와 쓰시마 국경 불꽃축제를 연계한 크루즈 여행상품을 개발해 내년부터 2박3일일정의 불꽃축제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올해 부산불꽃축제는 일본에서 3척의 정기 여객선과 2척의 크루즈선이 광안대교 앞바다를 찾았다.

김무웅 기자

## [롯데호텔] 롯데호텔부산 'KTX패키지' 더 강력해진 혜택, All-in-one 호텔 패키지

롯데호텔부산은 내년 2월 28일까지 'KTX 패키지'를 선보인다. 호텔의 KTX 패키지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KTX 2인 티켓과 객실 숙박을 기본 구성으로 하는 패키지다. 지난해 3월 첫 출시 이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번 2014년 가을판에는 처음으로 호텔 뷔페 라세느에서의 조식도 그 구성에 포함됐다.

27만원(이하 세금 봉사료 제외)부터 마련된 'KTX 패키지'는 디럭스 객실에서의 1박과 서울, 부산 KTX 왕복 2인으로 실속 있게 구성됐다. KTX 조식 패키지'는 상기 특전에 라세느 조식 2인이 추가되며 가격은 29만원부터다. 'KTX 클럽 패키지'는 34만원부터이며, 클럽 디럭스객실 1박과 서울, 부산 KTX 왕복 2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부산역 픽업 서비스와 조식, 라이트 스낵, 애프터눈 티, 각테일 아워 등을 포함한 클럽 라운지 2인 이용으로 구성된다.

패키지에 포함된 KTX열차는 서울 출발 기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30분 단위로 하루 5회, 부산 출발 기준으로는 오후 2시, 4시, 5시 30분, 7시, 8시에 5회 운행되며 이는 코레일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롯데호텔부산은 부산역 2층 여행센터 내에 레일데스크를 운영한다. 모든 객실 투숙객은 레일데스크에 1실 최대 2개까지 수화물을 위탁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위탁한 수화물은 접수 시간으로부터 3~4시간 후에 수령할 수 있다.

패키지 고객이면 1실 4인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한 호텔의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L.T.E ROAD도 편리하다. L.T.E ROAD는 전용 차량으로 편안하게 이동하며, 동행하는 투어 컨설턴트로부터 상세한 지역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0월부터 두 달 간은 '수제 어묵만들기' 등의 신규 코스를 포함한 8개 프로그램의 '가을편'이 운영된다.

문의 및 예약 : 롯데부산호텔 051-810-1100

## [파라다이스호텔] 겨울철 호텔 안에서 온종일 누리는 올데이 서비스 "라운지 파라다이스 패키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는 따뜻한 힐링과 프라이빗 한 라운지 서비스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라운지 파라다이스' 패키지를 출시했다. 기간은 12월 1일 ~ 12월 31일.

라운지 파라다이스는 기업체의 임원들이나 외국인 비즈니스 관련 VIP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귀빈층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의 서비스를 그대로 옮겨 일반 투숙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프라이빗 라운지이다. 이로써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전국 최초로 비즈니스 관련 고객을 위한 클럽 라운지와 일반 호텔 투숙객을 위한 클럽 라운지 등 2곳의 럭셔리한 프라이빗 라운지를 운영하는 호텔이 된다.

라운지 파라다이스 패키지를 이용하면 오션스파 씨메르에서의 따뜻한 스파 힐링과 야외 오션풀이용, 실내사우나 이용(13세 이상 출입가능), 명품 하이엔드 엠프 브랜드 비알레(Devialot)오디오 음악감상, '라운지 파라다이스'에

서의 올데이 서비스(All Day) 등을 누릴 수 있다. 올데이 서비스는 다음날 아침 조식 뷔페, 낮 시간 동안 이어지는 디저트 카페, 스타일리쉬한 스낵과 주류가 마련된 저녁 해피아워 서비스까지, 온 종일 호텔 안에서 먹고 마시며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한 호텔형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클럽 라운지 서비스를 말한다.

라운지 파라다이스 패키지는 성인 2인과 어린이 1인까지 무료로 적용되며 어린이의 나이는 49개월 이상부터 출입 가능하다. 또한 자녀 동반 시 이 호텔 신관 1층에 위치한 하바 키즈라운지도 이용해보길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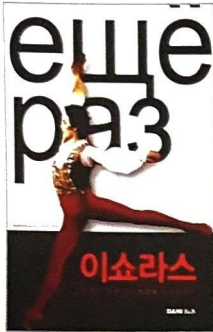
가격은 31만 5천원부터 시작되지만 미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얼리버드 패키지 및 신한카드 플레티엄 카드 회원 대상으로 10만원이 할인 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세금 및 봉사료 별도, 선착순 한정판매)

문의 및 예약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051-749-2111~3

1 새책 | 이 시대 젊은이들이 꼭 읽어봐야 할 양서

## 부산이 낳은 발레리노 레전드 이원국

“지난 30년을 의미없이 보낸 날이 있었다면 그날은 춤을 추지 않은 날이었다”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 보는 '이쇼라스 자서전'을 펴냈다. 이 책은 이 시대 청춘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다.



발레리노 이원국.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자전 에세이 '이쇼라스'를 펴냈다. 러시아말로 '다시 한 번'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이원국이 평생 자신에게 한 말이다. 가슴을 일삼으며 문제아로 10대를 보낸 그는 20살 늦은 나이에 발레를 시작한다. 발레를 시작한 지 1년 3개월 만에 KBS 무용 콩쿠르 대상을 거머쥐었고 국립 발레단 수석 무용수 자리를 꿰찼다.

그는 정상이 오르기까지 3천 컬러의 발레 슈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연습했다. 그가 흘린 땀에 대한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 무대 아래 예술가의 신념을 지키고자 고뇌하는 모습을 모두 만날 수 있다.

“지난 30년을 의미 없이 보낸 날이 있었다면, 그날은 춤을 추지 않은 날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이원국 지음/DANI B&B/324쪽/1만 5천 원

## 광복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하나 되어 누리다'

### 29일부터 이듬해 1월 4일까지 37일간 개최

올해로 6회째인 부산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오는 29일부터 이듬해 1월4일까지 37일간 크리스마스 트리와 전통놀이 광복로 일원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하나 되어 누리다'라는 주제로 광복로 입구~광복로 시티스



포트 구간과 시티스퓏~근대 박물관·국제시장 사거리 구간에 걸쳐 총 1.2km에서 열린다.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는 지난해 5회 때 630만 명이 찾는 등 방문객 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축제협회에서 선정하는 '피나클 어워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명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주최 측은 광복로 입구에 '사랑의 샘'을 주제로 한 높이 6m의 분수 모양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행사장의 중심인 시티스퓏에 설치되는 트리 모양의 주 구조물은 앞선 축제(17m)보다 훨씬 높은 20m로 제작돼 성탄절을 맞이한 관광객들의 눈을 잡아끈다.

또 시티스퓏~근대역사관에는 '인생의 길'을 의미하는 물고기인 익투스를 형상화해 8m 높이의 게이트 아래 물고기 모양의 터널이 만들어지고 시티스퓏~국제시장 사거리엔 다양한 섬 형태의 구조물과 눈을 형상화한 갖가지 색깔의 장식물이 330m가량 이어진다.

## 부산시 선정 마이스 우수기업에 롯데·파라다이스호텔



부산시가 선정한 마이스 우수기업, '부산 마이스 페스티벌' 개막식 시상식

부산 마이스페스티벌을 통해 파라다이스호텔부산과 롯데호텔부산이 부산시가 선정한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우수기업으로 표창을 받았다.

또 부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마이스 유공자' 공모에

서는 해운대그랜드호텔의 박복만 판촉부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은 2012년 열린 '제9차 IOC-WESTPAC(정부 간 해양학위원회 서태평양지역위원회) 총회'를 비롯해 최근 3년간 1천 회 이상의 마이스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 개최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다.

롯데호텔부산은 '2013 세계웨이크보드선수권대회', '제21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많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류 마케팅을 통한 시장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공모에 이어 1차 서류심사, 2차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했다”며 “우수기업은 앞으로 민간 주관 전시회 지원 등 마이스 기업 지원 시책에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부산시 미월드 부지 '랭햄호텔' 건립 허가 승인

부산시와 수영구청은 민락동 미월드 호텔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지엘시티건설이 미월드 부지 2만 8천㎡에 추진하고 있는 프리미엄급 랭햄호텔의 건축허가를 포함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재개발 인·허가가 승인 되어서 지엘시티건설은 호텔을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엘시티건설 측은 “호텔 운영사인 럭셔리호텔 브랜드 운영사 랭햄호텔그룹과 계약을 마무리 짓고 투자 유치를 확정하는 대로 미월드 철거공사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호텔은 지상 32~37층 높이의 쌍둥이 건물로 모두 935개 객실과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호텔 단지 A블록(32층 건물)은 6성급 럭셔리호텔, B블록(37층 건물)은 레지던스 호텔로 운영될 예정이다. 호텔이 들어설 미월드 부지는 콘도 미니엄 개발사업이 진행되다 2007년 로비 의혹 사건 등으로 재개발이 중단됐었다.

지엘시티건설은 7년만에 프리미엄급 호텔을 중심으로 한 관광·컨벤션 중심의 호텔복합단지로 개발방향을 바꿔 성사



수영구 민락동 옛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 2만8천㎡에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

시켰다. 한편 지엘시티건설 노블노마드는 인천 영종도 미단 시티 내 복합단지 개발사업, 경기도 파주시 미군부대 반환에 따른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노블노마드 관계자는 “17년에 걸친 주택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랭햄호텔 개발사업과 인천 영종도, 경기도 파주시 대형 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영도대교 개통 80년, 도개 재개통 1년’ 축하행사 개최

부산 영도대교가 개통 80주년과 도개회복 1주년을 맞아 23일 풍물패공연 등 축하행사가 열렸다.

영도대교는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4년 11월 23일 개통돼 영도와 현재 중구 광복동을 잇는 옥상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다리 길이 214m 중 상판 31m가량이 틀리는 도개교로 제작돼 당시 부산시민은 물론 전국적인 볼거리로 자리잡았다.

지난 1966년 8월 31일 교통량이 늘고, 수도배관 배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개 기능이 중단됐다.

이후 영도대교의 도개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영도대교는 3년 4개월여의 복원 공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27일 도개기능을 다시 갖추고 왕복 6차로의 교량으로 거듭났다.

행사 당일 중구 광복동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 영도대교 친수공간에서는 오전 10시 영도대교 개통 80주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이 열렸다. 또 먹거리장터와 옛 영도대교 주변 모습을 담은 사진전도 개최됐다.

영도구는 ‘영도다리에서 놀자’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오는 26일~다음달 31일 영도대교 난간에 부산시민이 찍은 영도사진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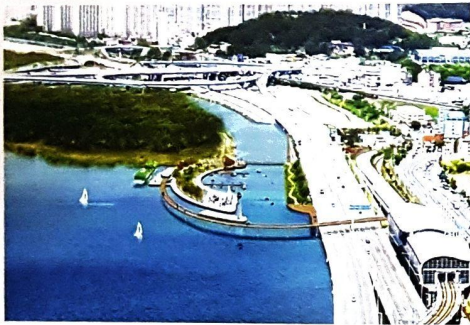
도개 1주년 기념일인 27일 낮 12시 영도대교 위와 봉래동 물양장 일원에서 색소폰 및 관악합주를 열고, 오후 7시30분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영도구립여성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문의 : 중구 문화관광과(600-4062)영도구 문화체육과(419-4068)

## 구포역~화명생태공원 간 스카이웨이 조성 사업 본격화

부산 북구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삼락·맥도·화명 생태공원을 아우르는 낙동강변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 3000억 원을 확정,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감동진 나루터 복원 사업은 낙동강변인 구포동 233의 1번지 일원에 감동



진 나루터를 복원하는 동시에 선착·계류장 등을 설치하고 나룻배를 건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분수대와 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인근 구포역, 구포시장, 화명강변공원, 화명수목원 등과 연계해 생태와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관광벨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북구는 2011년 스카이웨이 조성 사업이 포함된 나루터 복원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200억 원에 이르는 사업

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에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이후 나루터 복원 사업은 시의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사업에 포함됐지만, 후순위에 밀려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 과정에서 100억 원이 소요되는 스카이웨이 사업도 추진이 중단됐다.

구의 나루터 복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스카이웨이는 총 길이 500m, 폭 10m 정도로 구포역에서 인근 다대항 배후도로 상공을 가로질러 반원 모양으로 화명생태공원 내 낙동강 둔치와 맞닿은 형태다. 스카이웨이가 조성되면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 간 접근성이 높아지는 데다 물 위를 걷는 듯한 이색 체험까지 가능해 대표적인 낙동강 조망 공간으로 유명세를 탈 것으로 기대된다.

## 자갈치시장 해안로, 도심 관광형 위판장 문열어 영도대교 자갈치시장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듯

국내 첫 도심 속 관광체험형 위판장이 부산 자갈치에 문을 열어 인근의 영도대교와 자갈치시장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2구잠수기수협은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회센터 옆 매립지에 현대식 위판장 건립을 끝내고 최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건물은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해 최근 완공됐다. 부지면적은 1천400㎡이며 건물은 지상 4층(연면적 2천533㎡) 규모로, 3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바다를 매립하고 건물을 짓는데 96억여 원이 투입됐다.

A동은 본 건물로, 1층에는 위판장이 있고 2층에는 위판장의 경매 모습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경매관망로가 설치됐다. 1층 위판장의 경우 경매 후에는 위생적인 판매시설을 갖추고 중도매인들이 직접 관광객과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패류를 판매한다.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중보다 가격은 20~30% 저렴하다. 취급하는 패류는 부산과 경남 진해, 통영, 거제, 사천 앞바다에서 잡은 개조개, 바지락, 홍합, 해삼, 미더덕, 멍게, 키조개 등이다.

B동에는 수산물을 보관·저장하고 가공·포장하는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며, C동에는 잠수기수협 상호금융 점포가 들어섰다. A, B, C동 간은 연결로가 있어서 옥상과 연결로에서는 영도대교와 남항의 아름다운 모습도 관람할 수 있다.

관계자는 “위판장은 관광명소 영도대교와 자갈치시장을 잇는 자갈치 해안로에 위치해 도심 관광형 위판장으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 명소와 잘 연계하면 새로운 도심 속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 ‘등대콜’ 친절캠페인, 관광 홍보단 발족



부산의 브랜드 택시 ‘등대콜’ ‘달리는 관광 홍보단’이 최근 발족, 센텀시티 KNN 사옥 잔디마당에서는 70여 대 택시 퍼레이드와 함께 대규모 친절 캠페인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협회,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주관했다. 캠페인에는 ‘등대콜’ 운전자 외에 통역 가이드,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경찰,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했다.

특히 이날 퍼레이드에 참가한 ‘등대콜’ 택시 70여 대 외에 앞으로 4천여 대의 택시가 연말까지 친절 깃발을 달고 시내 곳곳을 운행하며 ‘관광 홍보단’ 역할을 하게 된다.

## 부산발전연구원, 도심공항 터미널 입지, 벅스코가 가장 적합

부산발전연구원(BDI)이 최근 발간한 BDI 포커스에서 '부산 도심공항터미널 건립을 위한 과제'에서 공항 접근 교통수단과 이용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벅스코의 입지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

도심공항터미널(City Air Terminal)은 공항이 아닌 도심에서 항공 여객과 화물 탑승 체크인 및 출국 수속을 하고 공항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해 항공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이다. 국내에서는 코엑스가 있는 서울 삼성동과 서울역 2곳에서 운영 중이다. 부산의 도심공항터미널 이용 수요에 대한 분석 결과, 이용객은 2030년 고성장 기준으로 17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자차구·군별 인구 등 일반적 공항이용객 유발요인과 김해공항 출입국 현황을 감안하면,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하구가 상위권을 차지해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할 때 벅스코가 최적의 입지로 조사됐다.

부산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 추정치를 바탕으로 시설 수요를 산정한 결과 체크인 카운트 10개 기준 5천400㎡의 공간에 체크인 시설 및 장비와 출입국관리 세관 등 관련기관, 공항리무진 택시 등 공항 접근수단 관련시설, 환전소 카페 음식점 여행사 등 편의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발연 이은진 연구위원은 "도심공항터미널은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고 면밀한 검토와 수익창출원 확보가 요구된다"며 "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 공항리무진 운영사, 벅스코, 부산관광공사,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해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부산관광공사·에어부산 일본 라쿠덴트래블 여행사와 업무협약 체결

'일본인 관광객, 온라인 마케팅으로 잡는다'

최근 영화 약세 영향 등으로 급감하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일본 1위 온라인 여행사인 라쿠덴트래블과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부산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수병 부산관광공사 사장,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 라쿠덴트래블의 여행사업부문 총책임자인 다케다 가즈노리 상무, 부산지역 특급호텔 총지배인 등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와 에어부산은 일본인 관광객 모객에 필요한 부산관광 콘텐츠와 항공비 할인 혜택등을 제공하고, 라쿠덴은 자체 매체와 회원을 활용해 비수기 부산 여행상품 판매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사와 라쿠덴은 여행 비수기인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라쿠덴 온라인 사이트에 '부산 가자! 캠페인' 특별 페이지를

제작해 부산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돼지국밥, 씨앗호떡 등 부산의 대표 먹거리도 취재해 소개한다.

에어부산은 라쿠덴 온라인 사이트 내에 일본인 개별 관광객 원스톱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항공권 구매때 포인트나 1천 엔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동안 부산의 음식점, 관광지, 호텔, 시티투어 버스, 환전 등 총 34곳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플라이 앤 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라쿠덴은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회원 1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메일링 마케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 여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 20~50대 일본 여성 5만 명을 집중 마케팅 타겟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감소했고, 같은 기간 부산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28.9% 줄었다.

##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촌 일대서 제1회 공방아트 페스티벌 개최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촌 일대에서 공방아트페스티벌이 열렸다. 공원공락(公園共樂) - '즐거워 공원 만들기'를 주제로 5락이 있는 공원 축제다. '5락(樂)'란 자연환경설치미술전, 미니어처 만들기, 갤러리전, 그림엽서공모전, 아트마켓 다섯 가지 즐거움을 말한다.



부산시설공단, 부산시민공원 공방아트페스티벌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한 공방아트페스티벌은 이전 하아리아 부대 하사관 숙소를 개조한 공방갤러리에서 공방운영자가, 상주작가, 협력작가의 작품 100여 점과 개장 이후 5개월 간 공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학생들이 직접 만든 체험결과물을 선보였다. 부산시민공원이 추구하는 '공원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 즐긴다'라는 취지와 문화예술촌 공방입주 작가들의 열정이 만나 가능해진 행사로 여타의 시민공원에서는 보기 드문 행사다.

### 1락\_자연환경설치미술전

1락은 자연환경설치미술전이다. 일본 대나무작가 시노하라 히로유키가 시민들과 함께 대나무설치물을 만든다. 여기에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이를 무대 삼아 이벤트 공연을 벌이는 등 환경과 미술행위와 공연이 녹아든다. 폐목으로 만든 코끼리, 하아리아 부대 지형을 형상화한 말, 공원에 나타난 상어, 나무와 합일 된 조명 등 공원 자체가 되어버린 7명 작가들의 설치작품이 1락이다.

### 2락\_미니어처 만들기

부산 옛 도심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산복도로 미니어처마을이 재탄생된다. 신자락은 실사이즈를 고스란히 축소했다. 금속미니집, 나무 미니집, 도예 미니집 1천500점이 부산 산복도로 미니마을로 완성된다. 행사기간 중 체험신청자들이 직접 미니집을 300채 정도 더 만들며 미원의 마을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들 미니어처는 포토존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3락\_갤러리전

공방 작가들과 상주작가, 협업작가들 72명이 최근 작품을 내놓았다. 금속, 목공, 도예, 판화, 섬유 등 105점 작품이 공방별로 다섯 가지 본색을 드러낸다. 더불어 시민학생들이 공방에서 참여프로그램에서 만든 체험물도 같이 전시한다. 작가 작품과 일반인 작품이 나란히 함께하는 전시는 시민들의 참여의식과 관심을 증폭시킬 것이다.

### 4락\_그림엽서 공모전

지난 9월1일부터 15일까지 국제 공모를 통해 중국, 핀란드, 우크라이나, 카메룬,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22개국으로부터 엽서 2천 104점을 미리 받았다. 이 중 수상작을 야외전시장 흥적파고라에 전시한다. 엽서에는 그리기, 찍기 등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 글이 있는 우리 마을이 그려져 있다. 선정된 작품은 부산시장상전체 대상, 시회의장상(우수지도교사), 시설공단이사장상, 아트페스티벌 운영위원장상으로 공방아트페스티벌 개막식 때 시상할 예정이다.

### 5락\_아트마켓

공방촌 앞 문화의 숲길에서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아트마켓을 연다. 다양한 장르의 미술품, 아트상품을 만나 보고 쉽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매주 토요일 상설장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김무용 기자

# 2014부산비엔날레 새로운 예술교육 지평열고 막내려

## 다양한 학술행사와 국제교류행사, 시민참여 행사 등으로 구성

2014부산비엔날레가 지난달 20일부터 11월22일까지 64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세상 속에 거주하기'를 주제로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문화회관 등지에서 30개국 160여명(팀) 380여점이 전시됐다. 2014부산비엔날레는 본전시와 2개의 특별전 그리고 다양한 학술행사와 국제교류행사, 시민참여 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2014부산비엔날레는 먼저 대가들의 세련된 본전시와 젊고 실험적인 특별전이 눈에 띈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본전시는 전시감독(올리비에 케를렝)의 노련하고 세련된 전시방법을 통해 '세상 속에 거주하기' 위한 예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을 유수의 작가 작품을 보여 줬다. 아시아 큐레토리얼展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신진 큐레이터 공동기획으로 부산 지역의 공장 창고를 활용하여 다소 투박하나 젊고 활력이 넘치는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본 본 바다가 펼쳐졌으며, 세계적인 유명작가에서부터 신진작가에 이르기까지 작품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전문 전시공간과 거친 현장의 공간이라는 공간의 조화 혹은 대비가 이채로웠다. 한국 현대미술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비엔날레 아카이브展'은 한국 비엔날레의 역사전이다. 'Voyage to Biennale - 비엔날레 속의 한국현대미술 50년'을 주제로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작가의 작품 선별 전시와 국제 비엔날레에 처음 진출한 1961년 파리청년비엔날레부터 최근까지 시대별로 망라하여 다큐멘터리 형식의 전시를 선보였다. 이번 비엔날레는 다양한 문화관련 주제들이 함께하는 행사이다. 2014부산비엔날레에서는 전시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어 많은 기관·단체 그리고 국내·외 행사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여러 학술행사와 국제교류행사 그리고 부산비엔날레 아고라 프로젝트, 비엔날레 라운지 등의 부대행사가 있

다. 전시에 대해 국제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문화단체들과 아시아 비엔날레 개최 도시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열린 소통의 장을 열려고 했다. 지난 2012부산비엔날레는 요코하마, 상하이, 싱가포르 등 아시아비엔날레 대표자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2014부산비엔날레에는 그 포럼의 연장선으로 부산비엔날레조직위가 중심이 되어 4개 도시에서 추천을 받은 4인의 신진 공동큐레이터들이 기획하는 아시아 큐레토리얼展과 아시아 주요 비엔날레 간 실질적인 교류 방법을 논의하는 아시아 비엔날레 대표자 포럼을 마련했다. 부산비엔날레는 보다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를 강화하는 토대를 구축하여 아시아 비엔날레의 중심축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에선 예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전시공간 자체가 예술교육 현장이 되고자 올해 처음 개최하는 2014 부산학생비엔날레, 부산시민공원 내 시민사랑채 미로갤러리에 부산 초·중·고 학생들의 회화, 조각, 설치 작품 등 2,493점이 전시됐다. 일련의 행사로 여는 학생작가전, 외국 학생작품전 등과 더불어 비엔날레라는 큰 예술행사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활동의 교차영역을 확보하고 넓혀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

김무용 기자

해외여행을 떠날 때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카드를 쓸 것인지, 환전한 현지 통화를 쓸 지 고민이다. 만약 환전을 적게 하고 카드로만 끊는다면 다음 달 '카드값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카드와 현금,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써야 한다. 환율이 하락세라면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 해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사용 당일 환율이 아니라,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거래 내용이 국제 카드사에서 국내 카드로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비자 마스터 이맥스와 같

런 카드를 이용해볼 만하다. 이 밖에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대비해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 및 문자알림(SMS) 서비스를 신청해둘 필요도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다. SMS를 신청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용 신용카드 결제 내용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 부정 사용될 경우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권과 카드상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환전하기로 했다면 인터넷을 통해 환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 해외여행 중 카드 쓸 것인가, 환전해 쓸 것인가

동남아시아로 여행할 경우 현지 수수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 국내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를 가져가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



은 국제 브랜드를 탑재한 '해외겸용' 신용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여러 차례 환전을 거치면서 국제 브랜드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가 추가돼 최종 결제금액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자.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는 무조건 현지 통화로 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경비가 부담스럽다면, 할부결제가 되지 않는 해외 사용 금액을 국내에서 할부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만하다. 롯데카드는 '해외매출 사전할부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여행 기간과 금액을 미리 신청하면 이 기간에 결제된 금액을 자동으로 최장 24개월까지 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미처 출국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귀국한 뒤 결제일 2영업일 전까지 할부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할 카드의 국제 브랜드도 신경 써야 한다. 각각 일본과 중국에서 결제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JCB와 은련은 국제 브랜드 수수료가 없다. 일반적인 국제 브랜드로 해외에서 결제하면 1.0~1.5%의 국제 브랜드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중국 여행 시에는 JCB나 은

로 수수료를 우대 혜택이 좋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환전을 이용하면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최대 70%까지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은행 환전 수수료의 경우 국가별로 천차만별이다. 달러 유로 엔과 같이 흔하게 쓰이는 화폐의 환전 수수료는 은행 2%, 사실 환전소 1% 수준이지만 인도네시아 등 여행자가 많지 않은 국가의 환전 수수료는 10% 안팎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여행할 경우 현지 수수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 국내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를 가져가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여행 후 남은 외화는 환전하면 또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적당한 금액을 환전하는 것이 좋다. 외국 동전은 국내에서 환전이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지폐의 경우에는 외화예금에 넣어 두면 다음번에 여행 갈 때 외화를 그대로 찾으면 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달러 외의 돈은 입금 때에 약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외환은행의 외화통장은 동전도 입금할 수 있다. [bjbusan@naver.com](mailto:bjbusan@naver.com)



## 해운대 동백섬, 해수욕장 일대서 고운 최치원 문화 축전 열어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예술원 · 해운대 문화관광협의회 주관



부산 해운대구와 해운대 문화예술원, (사)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는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뜻을 기리는 제2회 고운 최치원 문화축전을 지난 9일 동백섬 정상 및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했다.

1부는 '2014동백섬문화관광축제'. 해운대문화예술원 주관으로 해운대 동백섬 정상에서 올해로 제19회를 맞는 '최치원 선생 추념 헌공 다례제'를 시작으로 축제를 시작했다.

최치원은 신라가 낳은 세계인의 한 사람이었다. 열두 살의 나이에 당나라로 건너가 열여덟 나이에 그곳의 고위관리 등용시험인 과거에 급제해 진사가 되고,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문필로 명성을 날렸다. 스물여덟의 나이에 신라로 돌아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보려 했지만, 뜻을 펴지 못하자 바다와 산을 찾아 소요하며 은둔했다. 해운대는 바로 최치원 선생이 머 무렸던 곳이다. 해운대문화예술원은 다도를 사랑한 차인(茶人)으로도 유명한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헌공 다례제를 최 선생의 동상이 있는 동백섬 정상에서 해마다 동백섬문화관광축제를 겸해 올리고 있다. 헌공 다례제에 이어 기로연 진다례 한마당, 두리차 한마당(차 무료 시음), 국악 공연, 한국 및 중국 다도체험, 염색체험, 가훈 쓰기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2부는 '최치원 문화축전'의 하이라이트, (사)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 주관으로 행사 당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최치원 한글을 만나다' 행사가 바로 그것.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라의 대문호이자 해운대 이름을 유래시

킨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문화 행사로 '최치원 시문 한글 받아쓰기'(내국인 300명·성인부 150명, 학생부 150명)와 '외국인 한글 붓글씨 대회'(외국인 100명)가 펼쳐졌다.

100명의 외국인인 구청에서 제공한 도포와 유건 등 유생 복장을 갖추고 행사에 참여했다. 내국인 300명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적은 '훈민정음 예의본(나랏말싸미 등켜 달아 문자와로...)'을 한 글자씩 새긴 티셔츠를 입고 성인부, 학생부로 나뉘어 받아쓰기 대회에 참여 했는데, '장원'(내·외국인 3명)에게 각 20만 원 상당, '최치원상'(6명) 각 10만 원 상당, '해운대상'(9명) 각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글 티셔츠를 제공했다.

이날 공식행사 외에도 신라 화랑도 무예공연, 국악 비보이 퓨전공연, 붓글씨 퍼포먼스 등 이색 볼거리도 선사했으며, 주렁구·금관 만들기, 신라 의상 입어 보기, 캘리그래피 가훈 써주기 등 시민 참여형 체험행사도 가졌다.

■빛과 선율, 해운대 가을을 수놓다

3부 행사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운대구 주관으로 오후 7시부터 '빛과 선율이 함께하는 달빛음악제'가 펼쳐졌다. 천 년 전 해운대와 현대가 만나는 시간이라고나 할까, 밝은 가을 달빛 아래 우리 고유의 가락을 즐길 수 있는 무대. 화관무 등 궁중무용, 퓨전국악, 버스킹 밴드, 초창가수 공연 등이 준비돼 있어 춤과 선율, 달빛이 어우러진 공연이 질어 가는 해운대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효영 기자

## 이기대, 피톤치드 농도 자연휴양림 수준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의 피톤치드 농도가 자연휴양림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도구 태종대유원지와 서구 대신공원에 피톤치드 농도가 높아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힐링공원'으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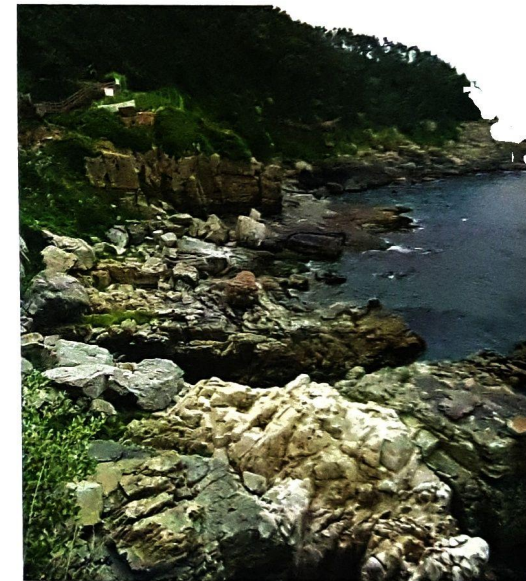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6월 생활권 가까이 있어 부산시민이 자주 찾는 도심공원의 생리활성물질(피톤치드) 농도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 도심공원은 동래구 금강공원, 해운대구 대천공원, 남구 이기대공원, 서구 대신공원, 영도구 태종대유원 등 5곳. 모두 접근하기 쉽고 넓은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도심공원이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일 이들 공원에서 피톤치드 성분인 피넨, 리모넨, 보닐아세테이드 등이 평균 182~825pptv(1조분용, 공기 중에서 물질의 부피가 1조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함)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조사한 자연휴양림의 피톤치드 농도(161.5~5천578.7pptv)와 비슷하거나 일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 공원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쉼터 2~3개 지점과 산책로 구간에서 실시한 것. 이기대공원

이 평균 825pptv로 가장 높았고, 태종대유원지 784pptv, 대신공원 663pptv, 금강공원 317pptv, 대천공원 182pptv로 나타났다. 특히 이기대공원 해안산책로 구간에서는 피톤치드 농도가 1천110pptv로 나타나 조사 지점 가운데 가장 높았다.

피톤치드란 식물이 만드는 생리활성물질 또는 식물체에서 자위 수단으로 방출하는 살균성을 가진 휘발성 물질을 말한다. 향균작용, 식물성장 제어활동 등을 하며 사람에게는 근육통, 감기, 정신포로, 혈액순환,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다음달까지 같은 공원에서 피톤치드 농도 조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 이기대 갈맷길, 해안산책로 새롭게 단장

이기대 갈맷길이 올해 안으로 새롭게 단장된다. 남구청은 최근 이기대 해안산책로 내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의 정비사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정비 대상은 갈맷길 구간 중 남구 윤희동 동생말 해안산책로 일원 81m 구간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에 나무나 담쟁이 덩굴을 심는 녹화 사업이나, 이기대 전설과 관련된 두 기생의 이야기를 탈입 벽화로 꾸미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남구청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해안산책로 내 옹벽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고,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기대 갈맷길'로 잘 알려진 이기대 해안산책로는 부

산의 다른 갈맷길 코스와 달리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구간이 4.9km로 길며, 도로 등으로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걸을 수 있다. 또 부산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높아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견학 코스로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남구청은 이기대 큰고개쉼터에 화단을 조성하고, 노후 벤치와 산책로 데크를 보수하는 등 이기대 공원 정비 사업도 실시했다.

# 2014년 9월 부산, 외국인 관광객 방문 동향

2014년 9월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221,746명으로 전년동월(258,429명) 대비 14.2% 감소(전국대비 구성비 17.8%), 전월(240,734명) 대비 7.9% 감소 > 9월 누계 2,144,191명 방문으로 전년동기(2,149,815명) 대비 0.3% 감소  
 전국은 1,246천명 방문하여 전년동월(1,157천명) 대비 7.7% 증가 > 9월 누계 10,680천명 방문으로 전년동기(9,251천명) 대비 15.4% 증가  
 제주는 338,717명 방문하여 전년동월(264,750명) 대비 27.9% 증가 > 9월 누계 2,565,515명 방문으로 전년동기(1,903,437명) 대비 34.8% 증가

구분	한국전체	부산직접입국		타지역유	선원	합계	전년동기	증감비	구성비
		공항	항구						
총계	월계	1,245,777	69,864	61,580	90,302	221,746	258,429	-14.2	100.0
	누계	10,680,067	627,292	470,310	871,751	2,144,191	2,149,815	-0.3	100.0
일본	월계	196,306	20,844	10,284	1,703	32,831	46,183	-28.9	14.8
	누계	1,740,079	201,605	91,875	48,678	12,629	354,787	386,994	-8.3
중국	월계	564,078	16,949	22,812	42,665	82,426	87,146	-5.4	37.2
	누계	4,683,415	140,252	164,299	419,226	5,854	729,631	630,622	15.7
홍콩	월계	40,614	4,243	627	1,617	6,487	5,842	11.0	2.9
	누계	404,791	33,409	1,581	16,913	9,370	61,273	52,117	17.6
대만	월계	52,942	3,713	192	581	4,486	5,795	-22.6	2.0
	누계	486,284	38,395	10,523	9,356	107	58,381	48,018	21.6
태국	월계	33,552	1,036	471	938	2,445	2,101	16.4	1.1
	누계	324,603	10,630	3,809	13,415	609	28,463	22,238	28.0
싱가포르	월계	15,228	501	76	1,292	1,869	2,875	-35.0	0.8
	누계	125,356	3,949	533	10,741	7,942	23,165	22,849	1.4
말레이시아	월계	20,846	2,972	138	1,646	4,574	3,773	21.2	2.1
	누계	153,165	21,318	1,197	10,802	33,317	17,782	87.4	1.6
미국	월계	69,655	2,963	1,911	10,826	15,700	13,637	15.1	7.1
	누계	578,759	28,201	12,197	84,359	2,254	127,011	123,303	3.0
캐나다	월계	13,765	694	941	2,599	4,234	3,330	27.1	1.9
	누계	107,739	5,237	3,370	21,268	29,875	30,552	-2.2	1.4
영국	월계	12,428	1,045	2,184	1,447	4,646	4,013	15.8	2.1
	누계	99,894	8,958	8,712	13,551	6,375	37,596	36,232	3.8
프랑스	월계	6,604	660	112	1,008	1,780	1,681	5.9	0.8
	누계	50,740	4,785	842	9,827	602	16,056	14,248	12.7
독일	월계	3,682	457	445	1,014	1,916	3,335	-42.5	0.9
	누계	27,522	4,051	3,007	8,613	4,533	20,204	27,771	-27.2
러시아	월계	17,418	1,217	972	3,112	5,301	4,471	18.6	2.4
	누계	154,758	12,154	7,528	23,794	3,231	51,301	51,607	-0.6
호주	월계	16,721	993	2,583	1,678	5,224	2,929	78.4	2.4
	누계	101,974	6,634	8,061	11,832	26,587	26,753	-0.6	1.2
기타	월계	150,886	8,770	17,352	37,663	41,491	64,779	-35.9	18.6
	누계	1,354,183	82,735	107,669	237,655	121,332	490,102	599,414	-18.2
교포	월계	25,662	1,510	1,510	2,989	6,336	6,539	-3.1	2.9
	누계	214,415	14,441	14,441	27,127	56,442	59,315	-4.8	2.6

자료: 부산시 제공

# 환대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재방문을 촉진시키는 관광자원이 된다.

“방한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과 동시에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만의 환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고유의 '환대문화'가 있는가? 환대는 재화(goods)처럼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없으며, 화려하지도 않지만 아직 관광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관광서비스 질적 개선의 필수 부문이다.

이미 관광학자인 맥킨도쉬는 관광객은 관광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을 즐기기 위해서 방문하지만, 따뜻한 환대를 바라는 자연스러운 인간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며, '환대'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방한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과 동시에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만의 환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들에게 관광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있어 중요하며, 그 역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관광산업에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국민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환대가 왜 필요한지를 인지하게 된다. 이때 대국민 환대공익광고나 환대실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환대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 나서서 실천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함께 환대문화를 만들어 가면 된다.

우리지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과 마주쳤을 때, 미소로 인사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환대를 베풀 수 있도록 실천부터 시작

하면 된다. 초등학생부터 다문화 친구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실시한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환대'를 실천할 것이다.

점점별로는 식당에서도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토속음식, 지역적 특징을 갖는 음식을 즐기며, 그 지방의 고유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은 관광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즐거움을 두 배로 느낄 수 있도록 외국어 요리 설명에 대한 설명과 재료, 조리법을 소개할 수 있는 외국어 메뉴판을 마련해 둔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사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교통부문에서도 차별화된 환대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경주 천년마중 택시는 '달리는 문화관광해설사'로 유명하다. 택시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천년고도 경주시 곳곳을 설명해 준다. 초행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천년마중 택시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생생한 정보를 들으며 관광활동을 도와주니, 그 만족도는 높을 수 밖에 없다. 이 또한 독특한 환대서비스의 좋은 예다.

관광안내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환대서비스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가는 환대서비스를 보여주는 관광안내는 없을 것이다. 이를 적극 알리고 체계적 한다면 분명 우리만의 독특한 환대문화의 기반조성에 큰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외에도 환대산업 별로 찾아보면 차별화된 우수 환대서비스는 다양하다.

이를 발굴하고 포장하여 우리나라로부터 종사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알려주고 거기에서 감동하며 실천을 유도한다면, 한국의 환대서비스 질적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환대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재방문을 촉진하거나 유발시킬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외래관광객 2000만 명 달성시점에는 우리나라의 환대서비스 문화가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bt@busan@hanmail.net

# 저물어 가는 가을, 가을의 전설 그곳에 가면

“군고령의 갈매나무를 다룬 시인 백석도 ‘단풍든 시장은 새빨간 못을 웃고 새빨간 말을 지를댄다’는 찬사를 내놓았다.”

내장산은 단풍계 '가을의 전설'이다. 지난 한 달에 이어선 소프트웨어 검색 건수에서도 총 2150만건 중 28만건 검색되면서 '실악산'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자력이 있다.

내장산 단풍 속살을 즐기는 다양한 등산 코스도 만들어져 있다. 가벼운 산보 코스는 108그루의 단풍터널 걷기가 강추. 제대로 된 등반을 원한다면 일주봉에서 벽련암과 서래봉을 지나 내장사를 트래킹할 수 있는 서래봉 코스가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인 법. 눈의 황홀경이 끝나면 맛의 황홀경에 빠질 차례다. 포인트는 정음 산외한우마을. 이곳은 영월 다하누촌과 더불어 국내에서 한우를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한우촌으로 꼽힌다. 고기를 먹는 방식도 재밌다. 즉 늘어선 정육점에서 마음에 드는 한우 부위를 골라 고기를 먼저 산뒤 옆 식당으로 이동해 아재 값만 지불하고 구워먹으면 된다.

점심은 맛의 고장 전라도의 산채정식. 30여 가지의 반찬이 나오는 남도밥상을 푸짐하게 즐긴다.

다음 코스는 순천 선암사다. 천태종을 널리 전파한 호남종심사찰 선암사는 천년 고찰 조계산 최고의 단풍 관광지다. 드라마 무사 백동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선암사에서 가을 사찰의 절경을 감상한 뒤 속소로 이동하면 첫날 일정은 끝이다.

둘째 날은 '삼홍'으로 유명한 지리산 피아골로 향한다. 삼홍이 품은 뜻은 이렇다. 단풍으로 산이 붉게 물드니 산홍이고, 그 산이 물에 비쳐 붉으니 수홍이며, 그 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 또한 붉으니 인홍이라. 피아골 단풍의 멋스러움을 그대로 담고 있는 용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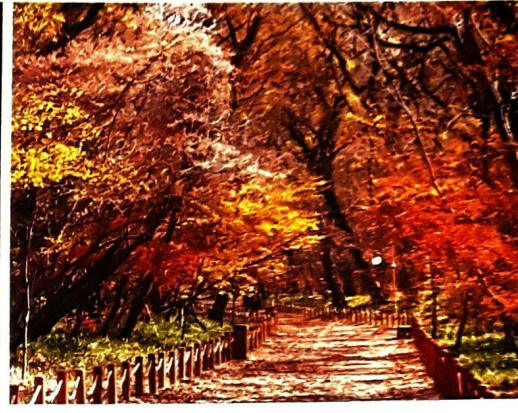
지리산 피아골은 경치가 빼어난 노고단과 반야봉사이의 아름다운 계곡으로 가을에 붉게 물드는 단풍이 특히 유명하다. 피아골 단풍은 지리산 10경에도 들어갈 정도. 연주담에서 삼홍소까지가 단풍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지리산 피아골 단풍을 감상한 뒤 향하는 곳은 아날로그의 메카 전남 '곡성'. 섬진강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깨 메기탕으로 배를 채운뒤 바로 섬진강의 명물 '레일바이크'에 오른다.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침곡역에서 가정역까지 약 5.1km의 구간을 지난다. 가을 섬진강변 바람을 실컷 맞고, 발길을 돌린다.

bjbusan@hanmail.net

# 생태환경 관광의 최적지 함양천연숲 상림 上林 그곳에 가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 쉬운 가을, 그 가을이 익어가는 11월의 만추, 고운 최치원 선생이 조성한 천년의 숲 상림(上林)은 야생화와 고목 그리고 물길이 한데 어울려 바람, 그늘, 물소리를 만들고 새를 불러들이고 하나의 음악이 되고 하나의 자연이 된다.



고운 최치원 선생이 함양 땅에 부임했을 당시 개천의 물이 범람하던 것을 막기 위해 물길을 서쪽으로 돌리고 제방위에 조성한 상림은 활엽수종으로 이뤄진 인공 숲이다. 최초 조성된 숲은 위천을 따라 4km에 달했으나, 현재 남아있는 숲은 1.6km에 불과하다. 백운산, 지리산, 가야산에서 가져다 심은 150종의 2만 그루의 나무가 지라고 있는데, 주로 활엽수림으로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의 참나무와 느티나무, 서어나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숲은 세차례에 걸쳐 파괴됐다가 재조성됐는데, 최연장자였던 350년 졸참나무는 생명을 다해 최치원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운정(思雲亭) 앞에 서 있다. 숲 속에는 독성이 있어 물고기 잡을 때 사용했다는 때죽나무, 열여자 마다 없다는 바람둥이 졸참나무, 진보랏빛 열매로 유명한 가막살이 나무, 꽃보다 순이 나올때 아름답고 빨간 열매가 달리는 나도밤나무 등 수종이 다양하다. 이곳 상림의 특징중 하나는 나무들은 곧게 뻗은 나무가 거의 없는 것이다. 터 자체가 제방을 쌓아 만든 곳이라서 지기가 약하기 때문이라한다. 그러나 곧게 뻗은 나무숲에서는 느낄 수 없는 운치가 느껴지며, 나무와 나무가 하나가 되는 연리목(사랑나무)이 많다.

상림숲 바로 앞에는 2만평 규모의 연꽃공원이 형성돼 있는데, 연잎과 연근 채취로 쌀 수확보다 3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미관

상의 이유를 넘어 바람직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함양읍은 가을 세 기를 누르기 위해 4개의 석불을 세웠다고 한다. 상림의 마스크 트라 할 수 있는 이은리 석불도 그 중 하나다. 계곡에 떠나려와 있던 것을 이곳에 옮긴 것으로 손이 없고, 얼굴은 사람들의 손길과 세월의 손길에 마모돼 순각하고 정겨운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역사인물 공원에 가면 함양에 족적을 남긴 유명인사 13명의 동상이 서 있다. 김종직 정여창, 최치원 선생과 함께 의병대장이었던 유일한 평민태생의 문태서 선생의 동상이 서었는데, 모두들 모습이 비슷하게 눈에 띈다.

상림의 주요볼거리로는 연리목, 활화루와 백운산 산삼늬은 물이라 불리는 약수터 그리고 최치원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운정이 있는데, 이곳은 함양사람들의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상림은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상림을 가곤 후 금호미를 두고 떠났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금호미 다리를 만들고, 금호미를 찾기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상림의 사계 함양 제경으로 꼽을 정도로 아름다우나, 그중에서도 가을이 기울어가는 11월말 만추의 상림이 가장 운치 있다고 한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 쉬운 가을, 천년의 숲 상림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bjbusan@daum.net

#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국토해양부에서 1년 52주에 맞춰 매주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경관도로 52선'을 선정했다. 경관도로(Scenic Road)는 도로와 주변이 환경이 어우러져 도로 이용자가 시각적·심미적으로 쾌적함을 느끼며, 전망이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도로이다.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지도출처 | 국토해양부

# 나만의 심포 여행, 호젓한 섬 여행 5선 관광공사, 순풍에 돛달고 보석 같은 섬 여행지 5곳 추천

한국관광공사는 '순풍에 돛 달고, 보석 같은 섬 여행'이라는 테마 아래 다섯 지역의 섬 여행지를 추천했다. 천혜의 비경, 감탄의 연속, '울릉도',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비경, '통영 대매물도', 해변과 절경 산채로를 품은 아름다운 섬, '굴업도·덕적도', 한 번에 즐기는 4색 섬 여행, '지은도-암태도-팔금도-안좌도', 섬과 섬으로 이어진 신비의 섬, '여수 사도'로 5곳의 섬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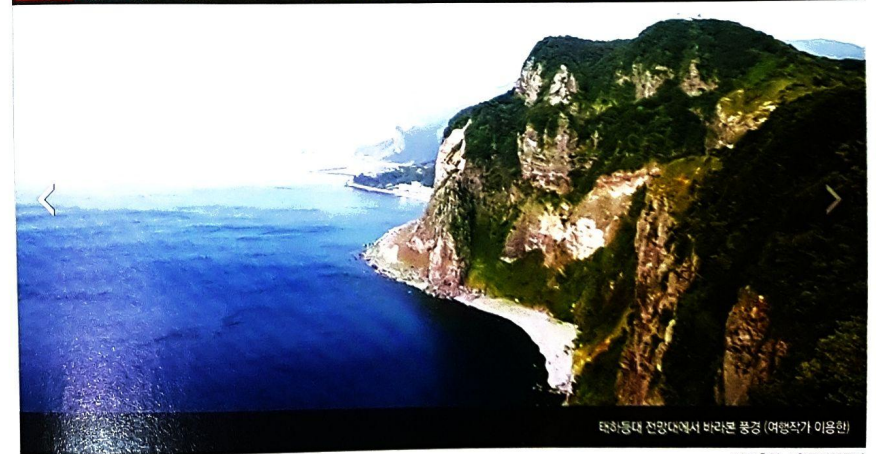
굴업도·덕적도 지은도·암태도·팔금도·안좌도 사도 매물도 울릉도

**울릉도** 천혜의 비경, 감탄의 연속, 보석같은 섬

**2코스** 5가지는 방법 16.7km (2시간 30분)

**[당일코스]**  
 도동, 저동 코스 도동항-익수공원(독도박물관)-독도전망대 케이볼캐독도전망대 또는 망향동-해안산책로-저동항-용래록포  
 서면, 북면 코스 도동항-남양리 거북바위-태하등대 전망대(모노레일)-상선암-관음도-나리본지성인물 등반 코스 도동항-대원사-성인봉-신령수-일봉본지-울릉국화, 삼백리항 근각자-나리본지 트레킹 코스 도동항-해안산책로(행낭등대)-저동항-차랑으로 내수전 일출전망대 임구 이동-내수전길(울릉도 둘레길)-석도-섬목선착장(저동항 백면 이용)-저동항

**[1박 2일]**  
 첫째날 저동항-내수전 일출전망대-용래록포-해안산책로-도동항-독도전망대 케이볼캐 돌퍼날 도동항-남양리 거북바위-태하등대 전망대(모노레일)-상선암-관음도-나리본지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부산, 지질명소·교육·관광자원 풍부

태종대, 송도반도, 이기대, 금정산, 낙동강 하구 등



태종대

바다와 산, 강이 어우러진 부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태종대와 송도반도, 이기대, 금정산, 낙동강 하구 등 부산의 주요한 지질 명소는 관광뿐만 아니라 교육 자원으로도 가치가 높다.

7000만년 전 백악기엔 호수지역, 총층이 쌓여 퇴적화된 암석 웅기, 지각 움직임 따라 바닷가로 이동, 수천만 년 걸쳐 풍화작용 거치며 깎아지른 듯한 빼어난 풍광 빚어졌다. 또 규산 성분 함유 퇴적암 처트 자갈은 일본 본토 백악기 퇴적층과 비슷해 과거 두 지역이 붙어 있었다는 증거로 그야말로 자연사 문화재의 보고다.

조금 과장하면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풍광을 배경으로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끝자락의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인간의 시간 기준으로는 가능하기조차 어려운 오랜 시간 파도의



낙동강 하구연

힘에 깎여나간 절벽과 울창한 수림이 조화를 이룬 곳으로 2005년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 제17호로 지정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바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태종대다.

빼어난 경관으로 명승에 지정된 태종대는 1억 년 전을 오르는 기간에 형성된 호수 퇴적층에 장산에서 분출된 화산재가 다시 퇴적된 곳으로 부산 지역 일대의 지질학적인 변화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 백악기 태종대 일대는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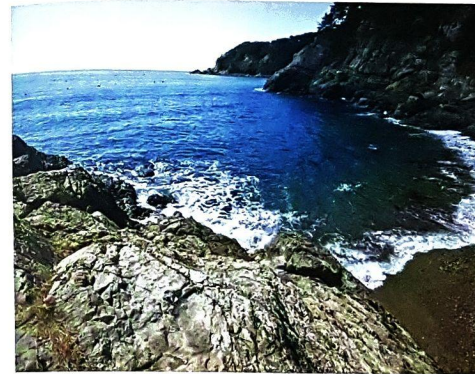
태종대에서는 동해의 푸른 물결과 힘찬 파도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7000만 년 전부터 1억4000만 년 전에 걸친 백악기에 태종대를 비롯한 부산 일대는 바닷물이 넘실대는 대신 호수가 있는 평원이었다. 우리 조상이 대략 2000만 년 전부터 '동해'로 불리는 바다가 제 모습을 갖춘 것은 지구의 역사에 비춰볼 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대략 9000만 년 전에서 7000만 년 전에 걸친 시기에 태종대 일대는 호수였다. 이 호수로 흘러들던 강은 2000만 년에 걸쳐 진흙과 모래, 자갈, 백악기 동물들의 사체를 실어왔을 터이고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 태종대에서 볼 수 있듯 총층이 쌓인 퇴적층이 만들어졌다. 당시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이어져 하나의 대륙을 이루고 있었다. 당연히 지금 동해로 부르는 곳은 바다가 아닌 대륙의 일부였다. 그러던 것이 대략 2400만 년 전 지각의 움직임으로 한반도 동쪽의 일본 열도가 분리되고 그 틈으로 바닷물이 치고 들어왔다.

## 태종대 유람선 선착장 밑에서 지질여행 시작

호수에서 퇴적돼 탄생한 태종대는 이후 지각이 갈라지고 이 동해 바다에 접하게 됐고 이후 수천만 년에 걸쳐 파도의 힘에 맞서왔다. 이와 함께 지각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진 단층의 흔적도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처럼 태종대 일대에는 호수에서 바다가 된 지질학적 변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유물들이 산재해 있다. 태종대 일주도로를 걷다가 등대 유람선 타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태종대 지질 여행이 시작된다.

신선바위 쪽으로 가다 보면 등대를 지나 휴게소 옆 난간 아래 지름 10cm 정도인 알개 파인 동심원 형태의 독특한 무늬 2개가 보인다. 이는 퇴적암이 형성된 후 과거에 해수면 위치에서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한 것으로 돌개구멍 또는 포트홀(pothole)로 부른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바위의 빈틈에 들어간 자갈이나 모래가 파도에 의해 회전하고 소용돌이치면서 서서히 바위를 깎아내 만들어졌다



물운대

## 바닷가에 누운 화산활동의 증거

태종대 일대에는 호수 지형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퇴적물이 쌓이는 정적인 과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7000만 년 전까지 일어난 역동적인 화산활동의 흔적도 뚜렷하다. 신선바위에서 자연사전시관으로 되돌아와 유람선 선착장에서 왼쪽으로 내려서면 자갈 해변이 나온다. 100m 정도 길이의 해변 끝 부분에 주변의 바위와는 도드라지는 모양과 색깔의 바위가 바로 눈에 들어온다.

파도가 부딪치는 해변에 세로로 비스듬히 드러누워 있는 녹색과 밝은 황토색으로 나뉜 바위는 태종대 일대에 형성된 태

종대층 퇴적암층을 뚫고 올라온 마그마가 식어서 굳은 것이다. 바위의 색이 두 가지인 것은 1차로 녹색의 마그마가 퇴적암의 틈을 뚫고 올라와 굳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 가운데를 황토색의 마그마가 2차로 뚫고 올라와 굳었기 때문이다. 녹색의 바위는 철 성분이 많아 어두운색이고 가운데 황토색 바위는 규산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아 밝은색을 띠게 됐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울릉도·독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국가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질 명소를 보존하고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21곳이 지정돼 운영 중인 국립공원이 생을 다양성 보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국가지질공원은 지질 다양성과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교육과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부산은 제주도와 울릉도·독도에 못지않게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다양한 지질 명소를 지니고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산 일출봉 등 10개소, 울릉도·독도는 코끼리바위, 봉래폭포 등 23곳의 지질 명소가 국가지질공원에 포함됐다. 최근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부산시가 지역의 지질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통해 확정된 12곳의 '부산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는 9000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독특한 지질 명소들이 망라됐다.

부산의 지질 명소 12곳 가운데 낙동강 하구는 지질학적 현상이 현재 진행형인 곳으로 강과 바다가 만나 만들어진 삼각주의 여러 특징을 볼 수 있다.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사주, 사구, 석호 등이 낙동강 하구만의 독특한 지형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철새 도래지로 이름난 습지의 다양한 동식물 상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운대와 두송반도, 송도반도, 두도,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등은 8000만 년 전을 전후한 시기에 호수 지형에서 만들어진 퇴적층과, 동시에 일어난 화산·지진 활동의 증거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두송반도와 송도반도, 두도에는 공룡의 전성기였던 백악기의 다양한 공룡 골격과 동지 화석이 발견된다. 금정산과 장산, 백양산, 황령산은 현재 부산의 기반을 이루는 화산 활동의 결과물을 잘 보여준다. 특히 황령산 구상반려암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발견된 희귀한 암석이다. 12곳 가운데 낙동강 하구와 송도반도, 태종대, 이기대·오륙도, 금정산 등 5곳은 공개 해설 장소로 운영된다.

손해식 편집위원

#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 신공항 빠른 시일내 건설 돼야 한다.

## • 국가경쟁력을 높여 주는 공항

-동남권은 세계 5위의 경쟁력을 갖춘 부산신항과 세계 14위권의 MCR(Megacity Region)경제권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공항의 시설 및 운영상의 한계로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복합교통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 • 24시간 운영 공항

-현 정부가 역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와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완성 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 필수

-다양한 국제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항공기운항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24시간 공항 운영이 필수

-신공항은 승객 수용기능 뿐만 아니라 물류 수용기능도 담당, 항공화물은 심야에 주로 수송되는 점을 감안할 때 24시간 공항 운영은 필수

-세계적인 공항 건설 추세도 해안이나 해상에 건설하여 24시간 공항 운영

※ 싱가포르 창이, 홍콩 첵랍콕, 상하이 푸둥, 일본 간사이-주부, 사우디 킹아부다지스

## • 안전한 공항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김해공항의 북측장애물(돛대산, 신어산 등)로 인한 안전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므로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김해공항보다 나은 입지에 건설

-우리나라 내륙은 대부분 산악지형의 장애물로 인하여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운 해안에 건설하는 것이 적함

-항공기 조종사들은 항공기 운항시 불안감과 안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장애물(산지 등)을 지적

## • 경제성 있는 공항(김해공항 존치, 신공항 동시 운영)

-김해공항을 존치하여 신공항과 동시 운영할 경우, 신공항은 활주로 1본 건설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건설비용(약 5조9천억원) 최소화를 통한 경제성 및 실현성 확보

※ 국가재정 투입여력 감안, 단계적 확장 필요

-기존공항 시설 활용을 통한 매몰비용 최소화(김해-대구공항 가치 5~6조원)

-기존공항 폐쇄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내외 사례도 대부분 기존공항 존치

※ 인천-김포, 광주-무안, 나리타-하네다, 간사이-이타미, 주부-나고야 등

## • 김해공항의 항공수요 점유율이 85% 이상 차지

-국내외 권위있는 항공수요조사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파리공항공사

## -공항별 항공수요

공항별	2013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합계	1,158	1,306	1,759	2,145	2,543	2,767	2,937
김해	967	1,093	1,487	1,816	2,162	2,353	2,497
(점유율 %)	(83.5)	(83.7)	(84.5)	(84.7)	(85.0)	(85.0)	(85.0)
대구	108	127	178	229	278	312	343
울산/포항/사천	83	86	94	100	103	102	97

※ 영남지역 5개 공항중 김해공항 항공수요 점유율이 85%를 차지(2030년)

-2023년 김해공항 활주로 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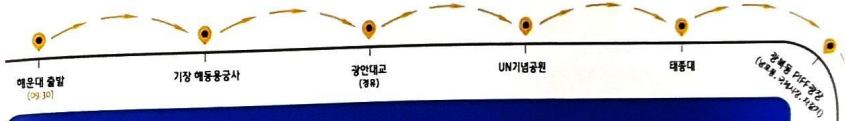
(단위 : 만명)

# 즐거운 여행은 시티투어와 함께 하세요~

생생한 여행정보 및 예약서비스를 여행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 시티투어 상품 안내



## 단독 맞춤형 투어

- 45인승 / 28인승 / 25인승 버스 · 12인승 / 15인승 봉고 승합차
- 각종 기업체, 현장학습, 수학여행, 기타 단체활동 전세버스 상담문의



### 부산시티투어

(9시 30분 출발) ● 대인 22,000원 소인 20,000원  
해운대-해동용공사-UN기념공원-태종대-자갈치-부산역-해운대



### 부산문화감천마을코스

(10시 30분 출발) ● 대인 22,000원 소인 20,000원  
해운대-용두산공원-영도리대개식-태종대-김천문화마을-자갈치-해운대



### 태종대코스

(11시 30분 출발) ● 대인 19,000원 소인 17,000원  
해운대-UN기념공원-태종대-자갈치-부산역-해운대



### 동곡사코스

(11시 30분 출발) ● 대인 19,000원 소인 17,000원  
해운대-해동용공사-동백산-자갈치-부산역-해운대



### 부산시티아경코스

(9시 출발) ● 대인 19,000원 소인 17,000원  
해운대-이기대동성암-금천산성-영도-광안리-자갈치-해운대



### 외도/동명케이블카코스

(7시 30분 출발) ● 대인 66,000원 소인 62,000원  
해운대-거가대교전망대-해동강 외도-미륵산비둘기공원코스



### 장사도/동명케이블카코스

(7시 30분 출발) ● 대인 68,000원 소인 65,000원  
해운대-거가대교전망대-장사도해성공원-미륵산비둘기공원코스



※ 도착시간 18시 30분 경 동일  
※ 참가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최소인원 미달시 행사기 취소됩니다.

KTX와 함께하는 서울밤도깨비 여행 대한민국 쇼퍼 메카,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밤도깨비, 아간 쇼핑여행

요금 68,000원 부터~ 일정: 부산역-서울역-동대문(대문)으로 이동-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쇼핑-사출역으로 이동-부산역

※ 제공내역: 왕복항공료, 여행보험료 / 음료차량료, 점심차량료(10,000원), 기타 개인비용 등 / 호텔 숙박객시장은 현지 가격입니다. 서울역에서 관광버스로 이동 가능합니다.



# 내 생애 최고의 여행!

## 여행사의 여행공제회 가입여부 확인부터~

**여행사 선택!**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 를 꼭 확인하세요!



“여행공제회는 여행객 여러분들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여행사의 공제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여행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비행기 요금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여행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부실한 여행사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8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32-4590 광주 062233-6400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242-0089  
충북 043231-5563 충남 041631-5465 전북 063287-6292 전남 061285-0832 경북 054745-0750 경남 055212-1345~6 제주 064742-8861 KATA 02752-8692